Korean

www.neargov.org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NEAR
One Northeast Asia, NEAR leading co-prosperity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May 20(Wed) ~ 22(Fri),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www.neargov.org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NEAR
One Northeast Asia, NEAR leading co-prosperity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May 20(Wed) ~ 22(Fri), 2015

NEA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환 영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NEAR 사무총장에 취임한 전재원입니다.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우리 연합을 위해 힘껏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NEAR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NEAR 회원단체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확대를 통해 NEAR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회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에 대한민국의 역사 · 문화 · 관광도시인 경주시에서 "2015 NEAR 실무자워크숍" 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이 자리에 오신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회원단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신 국내 회원단체 대표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에서 200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실무자워크숍은 지금까지 참가한 인원이 총 7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NEAR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회원단체 실무자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정체성 확립" 에 대한 특별강연과 회원단체의 홍보,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 NEAR 회비제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시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NEAR 발전을 위하여 실무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탐방 시간에는 도전정신과 실천의 힘으로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세계 철강산업을 이끌어 온 POSCO를 시찰하고, 마지막 날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여 한국문화의 진수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실무자워크숍을 통하여 NEAR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NEAR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NEAR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NEAR의 주요사업과 행사로는 '청년인턴 교류프로그램(PioNEAR)' , '청소년에세이공모전' 과 10월에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제10차 실무위원회' , 11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5 NEAR 국제포럼' 이 개최 예정이며, 이밖에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분과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회원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여정이 되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총장 **전 재 원**

Contents

□ **행사개요** ····· 7
• 개요 / 일정 / 좌석배치도

□ **NEAR 사무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 11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사업계획

□ **특별강연** ····· 25
• 조화의 시대(和代)와 동북아에서 '측은(惻隱)의 공동체' 만들기

□ **회원단체 발표** ····· 33
• 중 국
– 닝샤후이족자치구(닝샤 인촨의 새로운 발전협력 기회)
– 산둥성(2015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개최)
• 일 본
– 토야마현(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한 국
– 대구광역시(대구 메디컬 클러스터 소개)
– 대전광역시(세계과학도시연합 소개)
– 충청북도(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 전라남도(2015 국제농업박람회,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 경상북도(제11회 경제 · 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
– 경상북도(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 경상북도(실크로드 경주 2015 개최)
• 몽 골
– 움느고비아이막(움느고비아이막 소개)
– 올랑바타르시(올랑바타르시 현황 소개)
• 러 시 아
– 이르쿠츠크주(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
– 사하공화국(2015 NEAR 체육분과위원회 개최)

□ **NEAR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 95
• 회원단체 의견수렴 결과

□ **2015년도 NEAR 주요행사 일정** ····· 99

□ **참가자 명단** ····· 101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행 사 개 요

개요

일정

좌석배치도

2015 NEAR 실무자워크숍

□ 행사개요

○기　간 : 2015. 5.20(수) ~ 5.22(금) / 2박3일

○장　소 : 대한민국 경주시 호텔현대경주, 포항시 · 경주시 일원

○참　가 : 73명(5개국, 36개 회원단체) ※ 사무국 17명 제외

국가	참가회원단체(개)	참가자(명)	비 고
계	36	73	
중국	6	13	옵저버단체(간쑤성) 3명 포함
일본	3	9	
한국	13	25	
몽골	11	20	
러시아	3	6	

○주최/주관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주요내용

– 사무국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설명

– 특별강연(주제:조화의 시대(和代)와 동북아에서 '측은(惻隱)의 공동체' 만들기)

– 회원단체 홍보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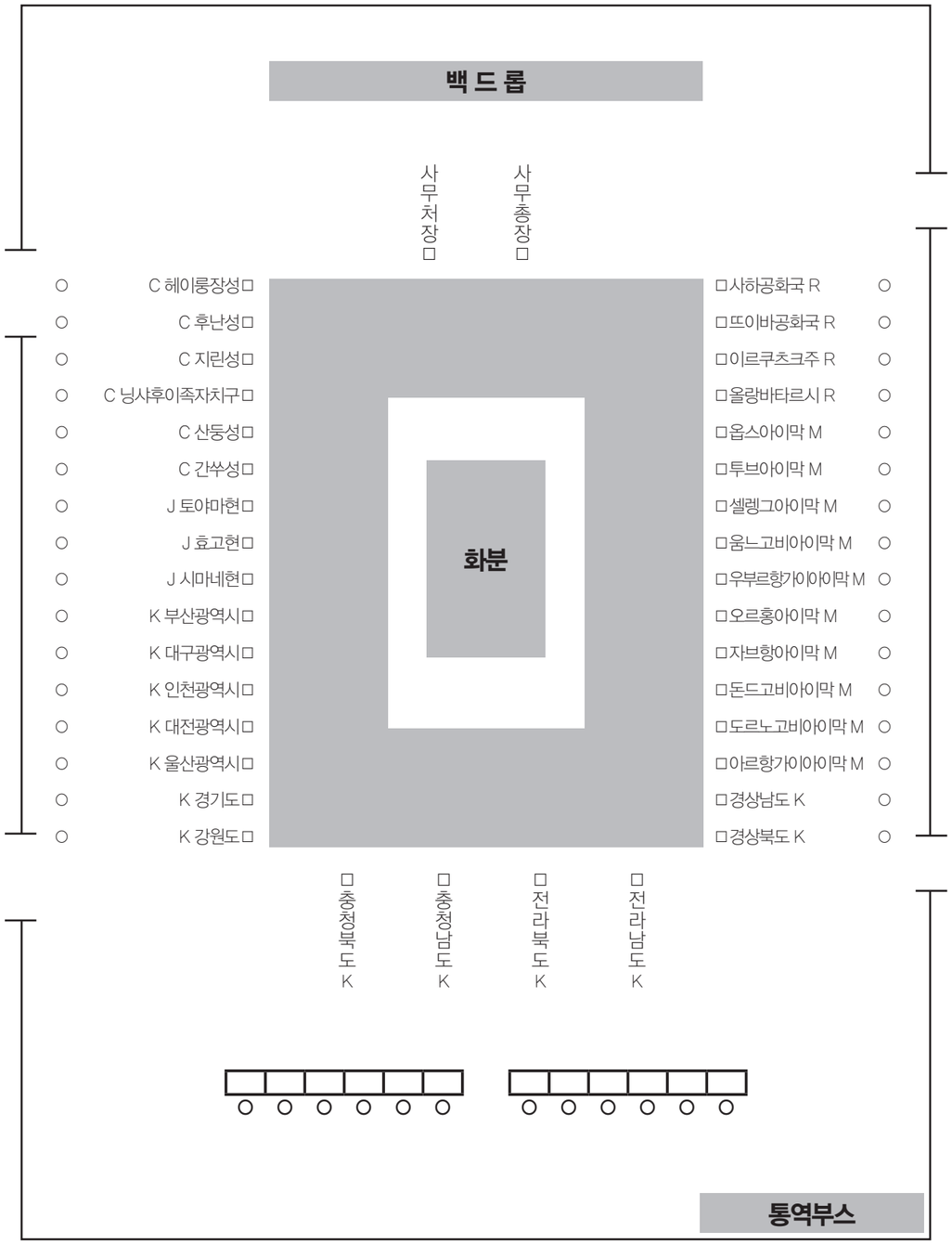
– NEAR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 현장탐방(POSCO, 석굴암 · 불국사)

□ 행사일정

일자	시 간	소요시간(분)	주요일정	비고
〈1일차〉 5.20(수)	~18:00		등록 및 체크인	호텔현대경주 1층
	18:00~21:00	180	석 식	호텔1층 뷔페(토파즈)
〈2일차〉 5.21(목)	07:00~08:30	90	조 식	호텔1층 뷔페(토파즈)
	09:00~09:20	20	등 록	호텔지하1층 컨벤션B홀
	09:20~09:30	10	NEAR 홍보동영상 상영	
	09:30~09: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국제협력팀장
	09:35~09:40	5	환영사	사무총장
	09:40~09:55	15	NEAR 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사업계획 설명	기획총무과장
	09:55~10:45	50	특별강연 – 조화의 시대와 동북아에서 '측은의 공동체' 만들기	고려대 손기영교수
	10:45~10:50	5	기념사진 촬영	
	10:50~11:00	10	Coffee Break	
	11:00~12:30	90	회원단체 홍보사항 발표	해당 회원단체
	12:30~13:30	60	중 식	호텔지하1층 컨벤션A홀
	13:30~15:30	120	NEAR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 토의과제 설명, 국가별 의견 발표 – 질의응답 및 토의, 정리	사무국, 회원단체
	15:30~15:40	10	휴 식	
	15:40~16:30	50	이 동(호텔→포항제철소)	전세버스
	16:30~18:00	90	현장탐방(포항제철소)	
	18:00~18:50	50	이 동(포항제철소→호텔)	전세버스
	18:50~19:10	20	휴식 및 만찬준비	
	19:10~20:40	90	공식만찬(주재:사무총장)	호텔지하1층 컨벤션B홀
	20:40~		자유시간	
〈3일차〉 5.22(금)	07:00~08:40	100	조식 및 체크아웃	호텔1층 뷔페(토파즈)
	08:40~09:00	20	이 동(호텔→석굴암)	전세버스
	09:00~12:00	180	현장탐방(석굴암, 불국사)	
	12:00~13:00	60	중 식	현지식(정수가성)
	13:00~		환 송	

□좌석배치도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NEAR 사무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NEAR 사무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1

목 차

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현황
Ⅱ. NEAR 사무국 현황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Ⅳ. 2015년 추진전략 및 주요업무계획

2

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현황

3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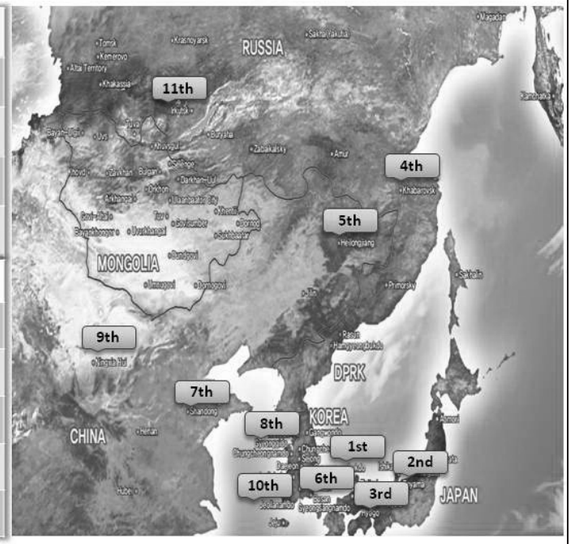
- ’93 ~ ’95 : 제1차 ~ 3차 회의 개최
- ’96. 9 : 제1차 경상북도(경주) 총회, 4개국 29개 단체 연합창설
- ’04. 9 : 제5차 헤이룽장성 총회, 상설사무국 경상북도 설치 결정
- ’08. 9 : 제7차 산둥성 총회, 6개국 69개 단체로 확대 (사무국연임)
- ’10.10 : 제8차 경기도 총회, 6개국 70개 단체로 확대
- ’ 12. 7 : 제 9차 닝샤후이족자치구 총회, 사무국 경상북도 장기존치 결정
  6개국 71개 단체로 확대 (세종시 가입)
- ’14.10 : 제10차 전라남도총회, 6개국 73개 단체로 확대

4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역대 의장 단체

제1대	한국 경상북도, '96~'98
제2대	일본 토야마, '98~'00
제3대	일본 효고현, '00~'02
제4대	러시아 하바롭스크, '02~'02
제5대	중국 헤이룽장성, '02~'04
제6대	한국 부산광역시, '04~'06
제7대	중국 산둥성, '06~'08
제8대	한국 경기도, '08~'10
제9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10~'12
제10대	한국 전라남도, '12~'14
제11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14~'16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회원단체 현황(6개국 73개단체, 옵저버 5개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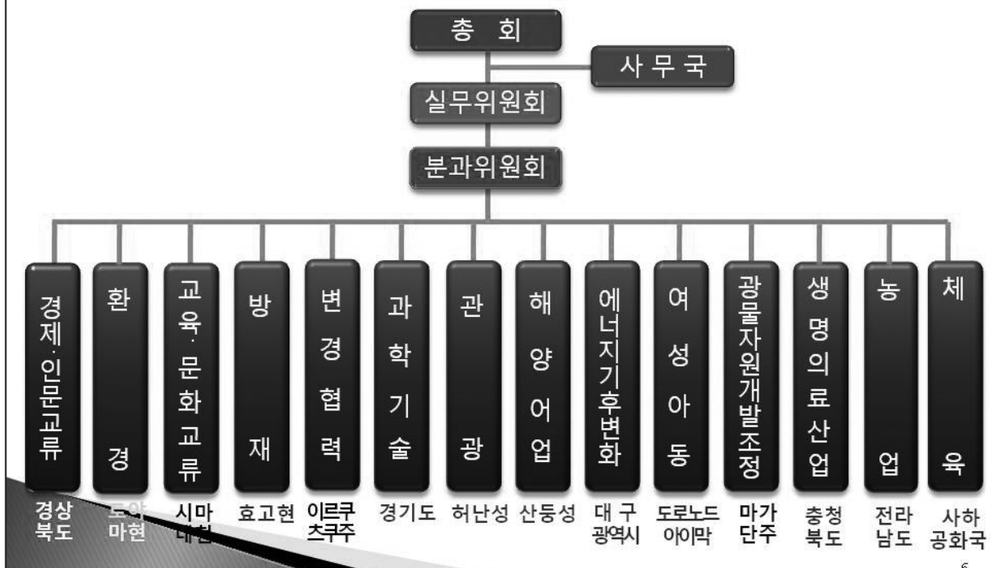
중국(7)
헤이룽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산둥성, 지린성
※4개 옵저버(랴오닝성, 산시성(陕西),산시성(山西), 톈진시)

일본(10)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1개 옵저버(야마구치현)

한국(1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연합 조직 총회, 실무위원회, 14개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북한(2)
함경북도, 나선특급시

몽골(22)
올란바타르시, 아르항가이아이막, 바양울기아이막,
바양홍고르아이막, 볼강아이막, 고비알타이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 다르항오올아이막, 도르노드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 돈드고비아이막, 자브항아이막,
오르홍아이막, 우브르항가이아이막, 움느고비아이막,
수흐바타르아이막, 셀렝그아이막, 투브아이막,
옵스아이막, 홉드아이막, 홉스굴아이막, 헹티아이막

러시아(16)
부랴티야 공화국,사하(야쿠티야) 공화국, 뜨이바공화국
알타이 변경주, 자바이칼변경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
경주,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캄챠카경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톰스크주, 케메롭스키주, 하카시야공화국

Ⅱ. NEAR 사무국 현황

사무국 설치

- 개소일 : 2005. 5. 2
- 위　치 :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사무국 조직 및 인력

- 사무총장, 1처 2과(기획총무과, 국제협력과) : 17명
  - 사무총장, 임기제 7명, 경상북도 파견 5명, 해외 회원단체 파견 4명

조직의 기능과 역할

-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회원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사업 추진
- 연합의 장기발전 프로그램 연구개발
- 회원자치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
- 연합자료 관리 및 정보자료 분석 제공 등

2015년도 예산현황

- 세　입 : 1,100백만원
  - 국제부담금 1,100(경상북도 770, 포항시 330)
- 세　출 : 1,100백만원
  - 인건비 531(48%), 운영비 384(35%), *사업비 185(17%)
    * 2015 NEAR 국제포럼 개최(100), 2015 실무자워크숍 개최(70), NEAR 청년인턴교류 프로그램(10), 청소년에세이 공모전(5)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3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1. 제9차 실무자 워크숍 개최

- 기간 및 장소 : '14.5.21~5.23, 한국 대구광역시
- 참 가 : 5개국 37개 회원단체, 80명 참가
- 내 용 : 교류협력 강화 방안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

2. 분과위원회 활성화 지원

- '14. 3월 ~ 10월, 4개 분과위원회 개최
  - 방재, 광물자원·조정, 교육문화교류, 생명·의료산업
- 14개 분과위원회별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원,
  참가율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14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3. 2014 NEAR 국제포럼 개최

- 기간 및 장소 : '14.8.27~8.30,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 참 가 : 5개국 25개 회원단체, 150명 참가
- 내 용
  - 환동해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등 토의
  - R-20(기후변화유럽지방정부행동기구)↔NEAR간 업무협력 MOU 체결 등

4. 제10차 NEAR 총회 개최

- 기간 및 장소 : '14.10.21~10.24 , 전라남도 영암군
- 참 가 : 5개국 33개 회원단체, 100명 참가
- 의결사항
  - 신규 회원단체 가입 (중국 지린성, 러시아 하카시야공화국)
  - 「연합헌장」 조문 개정 (실무위원회 개최 주기 변경 등)
  - 차기 의장단체 선정 (임기2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5. 청년인턴교류(PioNEAR) 사업 추진

- 내 용 : 회원단체 청년들에게 타 회원단체의 기업, 기관 등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
- 성 과 : 러시아 투바공화국에 한국어 강사(1명) 파견

6. 제2회 청년에세이 공모전 개최

- 참가대상 : 회원단체의 중.고등학생
- 내 용 : 동북아지역 청소년에게 연합의 이해와 자긍심 함양
- 수 상 : 6명 시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16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 NEAR 홍보영상물 제작·홍보물 발간 등

NEAR News	2014년 연차보고서	NEAR 홍보동영상
▪ 연 6회 발간(격월) ▪ 부 수 : 총 11,950부 ▪ 배 부 : 회원단체, 유관기관	▪ 연 1회 발간 ▪ 배 부 : 회원단체, 유관기관	▪ 6개국 언어로 제작 ▪ 연합의 교류협력 활동 및 사무국의 주요 추진사업 홍보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8. 회원단체 신규가입

- 중국 '지린성', 러시아 '하카시야공화국' 신규회원 가입 ('14. 10월, 총회)

9. 해외 회원단체 공무원 파견근무 실시(9년차)

- '06. 3월부터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각 1명씩 매년 파견근무 실시
- 국제기구 위상에 걸맞는 조직 구성 및 대외업무 효율성 제고 등

IV. 2015년 추진전략 및 주요업무계획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추진전략

-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사무국 역할 지속적 확대
- 회원단체간 공동 관심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활성화
- 타 국제기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NEAR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적 감각 배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중점추진업무

- 제10차 실무위원회 개최(지원)
  - 개최시기 : 2015.10.13 ~ 10.16
  - 개최장소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주최/주관 : NEAR/이르쿠츠크주
  - 내 용 : 제10차 총회 결과,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주요활동 보고, 회비제 도입 등 NEAR 현안사항 논의 등
- 2015 NEAR 국제포럼 개최
  - 개최시기 : 2015.11월 (3박4일)
  - 개최장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예정)
  - 주 최 :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과 공동개최 계획
  - 내 용 : 회원단체간 상생 협력 및 공동 발전방안 모색

※ 5월중에 주제 및 내용에 관한 회원단체 의견 수렴

중점추진업무

- NEAR 청년 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시행
  - 기 간 : '15.3~12월
  - 대 상 : 회원단체 대학생·청년 등
  - 운영방식 : 각 국가별 1~2개 회원단체 참여
  - 근무형태 : 타 회원단체 기업 또는 기관의 인턴, 직원
  - 지원내용

    ①사 무 국 : 항공료,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료

    ②수용기관 : 숙소 및 보수
- 제3회 청소년 에세이 공모
  - 참가대상 : 회원단체 청소년(국가별 1~2개 학교 각10명 정도)
  - 주 제 : 동북아시아지역이 상생·공동 발전 할 수 있는 방안 등
  - 시 상 : 최우수상 1명, 각국별 우수상 1명 시상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 증정)

중점추진업무

- 2015 NEAR 연차보고서 발간
  - 기 간 : '15.11월 ~ '16. 1월
  - 언 어 : 6개국어 (한,영,중,일,몽,러)
  - 배부처 :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 주요내용

    ① 총회, 국제포럼, 실무자워크숍, 분과위원회 등 활동사항

    ② 사무국 자체 사업 등 연합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NEAR 홍보간행물 발간
  - 기 간 : '15. 1 ~ 12월
  - 언 어 : 6개국어(중,일,한,몽,러,영)
  - 간 행 물 : NEAR News 연 6회 발간, 각종 홍보 팸플릿, 리플릿
  - 배 부 처 :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국제기구 등

중점추진업무

- 분과 위원회 활성화
  - '15년도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연번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	개최시기
1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3. 9 ~ 3.12
2	체육분과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	7.15 ~ 7.17
3	교육·문화교류	일본 시마네현	7.31 ~ 8. 5
4	경제·인문교류	한국 경상북도	8.26 ~ 8.28
5	농업	한국 전라남도	10월
6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10월
7	환경	일본 토야마현	11월 중하순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중점추진업무

- 회원단체 소개책자 발간
  - 대　　상 : 73개 회원단체 및 5개 옵저버 단체
  - 조사방법 : 일정 조사양식에 따라 회원단체 의뢰
  - 주요내용 : 일반현황, 주요관광지, 산업, 교육, 문화재, 교통 등
- NEAR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의 구성 을 보다 쉽고 단순하게 개편하여 방문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효율화 제고

25

사무국은 항상 회원단체 가까이에서
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6

특별강연

조화의 시대(和代)와 동북아에서
'측은(惻隱)의 공동체' 만들기

조화의 시대(和代)와 동북아에서 '측은(惻隱)의 공동체' 만들기

손기영(孫基榮)
고려대학교 교수

이 강연에서는 먼저 동북아의 근대기에 대해 알아보고, 인류문명의 차원에서 이 근대기를 형성했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21세기 들어 이러한 근대성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할까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보겠다.

동북아시아의 근대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가? 불행히도 동북아시아의 근대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폭력에 대한 굴종의 결과로 강제 개항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39년에 시작된 제1차 아편 전쟁은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아편을 청나라 당국이 단속을 하자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1842년에 영국이 동아시아의 제국인 청을 이기고 난징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을 통해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고,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등 다섯 개 항구를 강제적으로 개항시켰다. 일본은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이 지금의 요코스카에 쿠로후네(黑船, 흑선)라고 불리는 4척의 군함을 몰고 와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개항하게 된다. 일미화친조약 또는 가나가와 조약(Convention of Kanagawa)은 1854년 3월 31일에 체결되었는데 지금의 시모다 시와 하코다테는 이때 개항하게 되어 200년이나 이어진 일본의 쇄국정책은 막을 내렸다. 먼저 개항된 중국은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서구 근대국가를 모델로 자본주의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제국으로 변신을 도모한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합방하고, 1932년에는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세웠으며, 중국본토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점령하게 된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은 패배했고,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면서 군사력을 통제하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근대화를 계속하게 된다. 일본의 패배로 해방된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졌고, 한국은 독재정권하에서 근대화의 길을 가게 된다. 중국도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1978년 등소평의 지도하에 개방개혁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일본, 한국, 중국은 차례로 20세기를 근대화의 열정 속에서 보냈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선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동부해안지방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을 통해 고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 나라 정부 간에는 영토와 역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여러 미개발국마저도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21세기 중반에는 '아시아의 세기'가 열릴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이 영토와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협력이 아니라 반목과 대결의 길로 나선다면 어렵게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은 닫혀버릴지도 모른다.

사실 19세기와 20세기를 무모한 폭력과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대결과 전쟁의 길로 몰아넣었던 근대(近代, modernity)라는 시기는 21세기에 들어와 서서히 저물고 있다. 국민국가의 성립, 인간이성의 절대성,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한 인간문명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꿈꾸었던 근대가 저물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라는 구조물을 받쳐주었던 여러 기둥들이 21세기를 맞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던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통치력이 신자유주의, 초국가적 자본의 이동, SNS와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네트워크화된 시민사회의 성립을 통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둘째, 세계화(globalization), 자유무역협정, 무비자여행 등의 결과로 국민국가의 국경도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 셋째, 과학과 기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파괴, 지구온난화, 2045년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가능성 등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사실, 성장 지향적이었던 근대사회는 중국의 성장이 7퍼센트대로 하락하면서 서서히 구조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인간은 위에서 말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조화라고 본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조화, 심지어 인간과 기계의 조화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에 와있다. 그런데 맹목적 성장과 대결 지향적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가족과 이웃과 이웃나라를 자신처럼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실제로 조화라는 담론은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국가들이 서로 대결의 길을 향해 가고 있고, 테러집단은 점점 조직화, 흉폭화되어 가고, 환경파괴는 인간의 의식주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터미네이터(Terminator)와 같은 로봇이 인간문명을 위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근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장과 대결 지향적으로 국가목표를 잡는다면 인간은 보다 빨리 자멸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나는 조화의 시대, 다른 말로 화대(和代)의 시대가 열려야 되고, 열리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인간은 물건과 정보를 공유(sharing)하기 시작했다. 위키피디어(Wikipedia)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되고 있는가 알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전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비밀과 통제 속에 유지되었던 국가권력이나 통치행위도 위키리크스(WikiLeaks)와 같은 해커집단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데, 많은 국가기밀들이 국민들에게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공동체(community)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이버 공동체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도시인이 귀농을 꿈꾸고 있으며,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잃어버렸던 지역이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셋째,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면서 학살과 강간 같은 전쟁범죄, 환경파괴 등 인간사회의 여러 부조리에 대해 전지구적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넷째, 조화의 시대는 문화와 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 때 멸시 받았던 동아시아 문명과 인도, 이슬람 문명이 부상하고 있다. 아직 거칠지만 성장하는 이 문명들은 자연스럽게 서구문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것이다. 국가권력, 돈의 가치, 그리고 개인주의가 중요했던 근대가 저물면서 새로운 문화가 다양한 지역과 문명권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전지구적 변혁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는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과신과 국민국가를 통해 대결을 조장했던 근대, 즉 모더니티(modernity)를 끝내고 어떤 식으로 화대, 즉 하모니티(harmonity)로 진입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동북아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동북아는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국과 몽골, 한반도, 일본열도, 극동러시아를 포함하는 이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과 국가의 흥망이 있었다. 이들 제국과 국가들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질서와 그 질서가 구현되는 영역을 통합해서 동북아라고 부른다면,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경계와 정체성의 산물일 것이다. 한편 동북아는 어느 한 시기에 존재하는 실제적 공간일수도 있지만, 늘 경계와 정체성의 변화라는 시대와 세태의 흐름을 반영하는 상상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실제와 상상이 공존하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것이 가능한 작업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는 대륙을 지배한 중국 중심의 천하(天下)체제이다.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진 중국 서주(西周)시대부터 시작해 3000년 가까이 동아시아 세계를 지칭해 온 이 개념은 중화라고 불린 중국의 통치전략이며 세계화 전략이고, 소중화라고 불린 한반도 조선인들이 주로 사용한 추상적 세계관이기도 하다. 중국의 영향이 미치는 이 천하체제라는 질서 속에서 중국은 인근 국가들을 직접 지배하거나 조공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중국은 강성할 때 무력을 동원해 팽창주의로 나갔지만, 취약해졌을 때는 주변 민족들을 향해 다양한 회유책과 이간책을 사용했다.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 일본열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문명을 흡수하면서도 그들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압과 내부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조화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청일전쟁 이후 1945년까지 해양세력이었던 일본 중심의 제국체제이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서 근대화된 일본은 한반도를 시작으로, 만주,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까지 제국의 영역을 넓혀갔다. 일본에서 부상한 아시아주의(Asianism)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구호아래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동아시아인의 자결권과 연대를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일본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이 보인 영토적 탐욕과 폭압성, 비합리성의 결과로 동아시아인의 반발과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제국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국체제에서 서양에 대항하는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은 '대동아' 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으로 확립될 수 없었다.

셋째, 1945년 이후 현재까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과 중국, 북한, 극동 러시아로 갈린 분단체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분단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유럽의 양극화된 적대적 군사동맹체계와 유사하다. 이러한 이념에 기반을 둔 양극화된 체제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증폭시키면서 군비경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분단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경쟁의 관계는 남북의 분단과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라는 민족분단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었으며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보다는 불신과 반목이 지속되었다.

이상 동북아라는 지역을 보는 시각을 체제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동북아를 볼 때 분단의 그림자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전지구적 냉전체제의 해체와 세계화의 열풍 속에 동북아도 여러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분단이 해소되면 동아시아 전체에는 어떤 체제나 정체성이 만들어 질까?

첫째, 지역체제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지역만들기(region-making)가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즉,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지역(region)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유럽의 개별국가들이 어떻게 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을 이루어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발전했는지와 흔히 비교된다. 대표적인 예가 ASEAN Plus Three이다. 1996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동북아의 한중일이 매년 개최하는 정상회담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이 체제는 1997/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헤지펀드라는 공동의 적을 발견함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지역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는 외환 위기 및 금융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교환 협정으로 2010년 3월 2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000년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치앙마이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력은 2012년에는 2,4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중간의 패권경쟁, 영토와 역사를 둘러싸고 지속되는 중일, 한일 간의 국가 간 마찰과 민족주의의 발흥 등은 동아시아가 유럽과 같은 하나의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둘째, 공동체체제이다.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다. 서로에 대해 봉사한다는 뜻을 가진 이 합성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을 둔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 가치,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열린 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외의 조건들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과 결속성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터넷 혁명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지구의 어떤 곳도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부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보다는 결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동북아시아가 공동의 관심사, 가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면, 어떤 공동체가 가능할까? 물론 현재까지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 이러한 제약요건들을 반복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예만 들어 본다면 2015년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의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최근 대체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ASEAN Plus Three나 일시 중단된 한중일정상회담 프로세스는 말 할 것도 없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적 인접성과 역사적 상호관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늘 남아있다.

유럽연합은 소련과 위성국가로 형성된 공산권의 외적 위협과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에 비해 열등해진 유럽의 위상을 결속과 연대를 통해서 제고시키려는 유럽인의 내적 열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형성된 국가 간의 협상의 산물이다. 물론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동질성도 이러한 통합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적대국이었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연대는 동아시아의 두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럽통합의 주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인접성과 역사적 상호관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을 공유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화해하며 유럽과 비슷한 지역 혹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넘어 항상성과 결속력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지역이라는 개념이 현재의 동북아시아를 설명하는 데는 하나의 유용한 틀이지만, 국민국가와 특히 영토라는 개념이 중요시 되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삶의 경험을 무시하는 폭력적 결과물을 양산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전쟁, 억압만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형성되어온 담론, 더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상용되는 정제되지 못한 폭력적 언어행위까지 포함된다.

난 동북아가 회한과 분노의 공동체(Community of Regret and Resentment)에서 측은(惻隱)의 공동체(Community of Compassion)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지역 만들기가 진전되어서 다양한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근저를 흐르는 국민들 간의 혹은 국가내부의 다양한 세력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구성은 불가능하다. 측은은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오는 사단설(四端說)의 일부인데,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한 것으로 유교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측은의 공동체가 만들어질까? 첫째, 동북아의 여러 국제문제를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민족국가(nation state)를 단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양한 내부 집단이 형성한 국가공동체인데, 마치 국가공동체만 있고,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무시하는 시각은 민족주의에 휩쓸려 실태를 무시하는 쪽으로 담론과 정책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 내부에는 민족적 감정을 자극해서 충돌지향적인 상황을 만들려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측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충돌지향적 상황을 만들려는 세력도 측은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들이 충돌지향적인 이유는 많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혹은 인간집단은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로 그들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사실 인간 혹은 국가사회는 서로에 의지하며 상호공존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온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전에 일본이 고도 성장을 구가할 때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최대의 ODA공여국이었다. 결국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역사와 영토분쟁은 한중일이 함께 협력해 온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단적 망각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떤 시점부터 한중일은 복안적 시각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선택적 기억과 망각이라는 덫에 걸려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려면 세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을 제시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What Men Live By)』가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물음은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며 톨스토이는 아무리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에게도 내부에 마치 천사와 같이 타인에 대해 측은해 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물음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며 이에 대해 인간에게는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 이 허락되어있지 않다고 본다. 즉 인간은 자기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오만을 버리고 겸허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세 번째 물음에 대해 톨스토이는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을 동북아 국가 간의 문제에 대입하면 첫째, 아무리 폭압적이고 비도덕적인 국가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인도적이고 협력적인 국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면에서 폭압적이고 비도덕적인 국가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인도적, 협력적 성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노력해야 하는 측면도 강하며, 우선적으로 한 국가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폭압적이고 비도덕적 국가들이 취하는 행동이 진정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서로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망 속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적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도 실상을 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 집단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중일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망을 보면 사실 서로 의존하면서 존립해 온 측면도 큰 것이다. 이렇게 다면적 시각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인식의 각성이 있으면, '측은의 공동체' 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한중일 간에 여러 층위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 두드러진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국가 간 혹은 국민 간의 상호작용의 일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약간의 혐한론과 혐중론이 존재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고구려사가 한민족의 국가인지 아니면 중국의 지방소수민족정권인지를 둘러싼 2004년의 논란도 한 · 중 외교차관간 '구두양해사항' 합의를 포함해 양국정부관계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시정하고 더 확대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일단 봉합되었다.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관계 및 양국민간의 감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중국측과의 적극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역사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역사와 문화를 상당부분 공유하는 인접국으로서 강릉 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비롯된 중국인들의 반발 같은 사건은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단오제 혹은 단오절과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전했지만 한중간에 공유된 문화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옳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일, 중일의 대립인데,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걸려있어 양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일 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중국에 2010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빼앗기고 난 후 일본인의 자존심은 많이 상해버린 상태이다. 일본 내 혐한시위를 주동하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이 쓴 '대혐한 시대' 가 20만부 이상이 팔려 2014년 9~10월 아마존재팬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 혐한론이 비등하고 있고, 서점가에서는 마치 '요리' 나 '다이어트'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듯이 하나의 붐을 형성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도 사실 양측은 서로를 측은하게 봐야 될 이유가 많다.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1968년 서독을 제치고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자리에 올랐던 일본이 42년 만에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준 충격을 생각해 보면 충분이 측은하게 느낄 수 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비록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만주국을 만들고, 중국 본토에서 많은 중국인을 유린했다고 해도, 그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발의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포츠담선언으로 주권을 잃고, 연합군사령부 (GHQ)의 통치하에서 사실상의 미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자국민의 힘으로 헌법을 제정할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1946년 GHQ에 의해 헌법 개정 지침과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日本國)이 발표되었고, 새로운 '평화헌법' 은 1946년 공포되었다. 널리 알려진대로 이 헌법의 9조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 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의 영향권아래 있다. 아베정권이 우경화의 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가진 '보통국가' 가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20세기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측은한 마음을 가질 근거가 있다.

같은 이유로 일본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느낄 것이 아니라 측은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19세기말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인을 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결과는 숱한 인명의 피해와 잔혹한 전쟁범죄라는 결과를 낳았다. 단지 한반도와 중국의 일부가 일본제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의 희생을 발판삼아 일본의 근대를 문명의 진보로 자화자찬한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마치 미개한 민족인양 멸시의 눈으로 보고 통치했다. 종전 후에도 1965년의 국교수립이후 일본은 한국을 반공의 최전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로서 경제 · 군사 양면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하위 파트너로 삼았고, 한국의 독재정권하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대화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 중국의 개방 후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며 부를 축적했다. 100년이 넘는 정치경제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의 잔재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등을 통해 21세기에도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일본제국의 융성에 자극을 받은 중국과 한국이 20세기 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일본이 구가하는 물질적 풍요가 물론 일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축적된 부분도 있지만,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통치를 통해 수탈한 부분은 없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성취한 경이로운 성장과 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통치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자행된 분단을 마치 천형처럼 70년이나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측은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는 측은의 마음은 어느 하나의 국가가 가지는 일방적인 마음의 표시가 아니고 인접국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상당부분 공유해온 한중일간에 반드시 가져야할 상호적인 행위의 기준이고 태도이다. 다시 말해, 한중일간에는 '측은의 공동체' 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듯 했던 한중일정상회담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으로 2012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듯이 이 측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삼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제도보다는 선택적 망각과 기억의 악순환에 사로 잡혀 있는 한중일이 서로를 보는 시각과 태도, 그리고 행위의 규범을 교정해야 한다.

앞에서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무한경쟁의 시대는 이제 그 종말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 혹은 권위주의 국가라는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싸구려 민족주의적 열망에서 빨리 벗어나서 인접한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선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시급성을 띤다.

이런 점에서 2015년 4월에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의 관광장관 회의는 의미심장하다. 2014년 약 2천만 명이었던 상호 인적 교류 규모를 2020년까지 3천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포함해 3국 관광 교류 신시대 개막 선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맞아 한중일을 하나의 동아시아 역내 관광권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Visit East Asia'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몽골도 동북아의 국가로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은 특히 북한과 대사급 우호관계를 가진 나라들이다. 러시아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의 멤버로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몽골도 최근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과 남쿠릴열도(북방영토)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중이며, 이것이 양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고 있다.

맹자의 공손추편에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요,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는 대목이 있다. 즉 천시(하늘의 때)는 지리(지세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사람이 화합)만 못하다는 것이다. 인화는 중요한데 어떻게 인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측은의 마음, 즉 자기의 이익이나 칭송 또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떠나 우물에 아이가 빠진 경우 누구나 구해주고 싶은 마음을 발현시키는 것이 인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함으로써 버려지고 있는 많은 이익, 정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우물로 뛰어들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자각할 때, 우리의 관계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맹자와 톨스토이의 교훈을 종합하면 반목해 온 우리들 속에서 측은의 마음을 회복하고 상호간의 관계에 의지하며, 이러한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중일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조화의 시대, 즉 화대를 여는 방법이다.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회원단체 발표

○ 중 국

– 닝샤후이족자치구(닝샤 인촨의 새로운 발전협력 기회)

– 산둥성(2015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개최)

○ 일 본

– 토야마현(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한 국

– 대구광역시(대구 메디컬 클러스터 소개)

– 대전광역시(세계과학도시연합 소개)

– 충청북도(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 전라남도(2015 국제농업박람회,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 경상북도(제11회 경제 · 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

– 경상북도(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 경상북도(실크로드 경주 2015 개최)

○ 몽 골

– 움느고비아이막(움느고비아이막 소개)

– 올랑바타르시(올랑바타르시 현황 소개)

○ 러시아

– 이르쿠츠크주(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

– 사하공화국(2015 NEAR 체육분과위원회 개최)

닝샤 인촨의 새로운 발전협력 기회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중국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다섯개 광역 민족자치구 중 하나이며, 유일한 후이족(回族)자치구이다. 닝샤의 전체지역 면적은 6.64만㎢이며, 인구가 661만 명으로 그 중 36%가 후이족이다. 행정구역으로는 5개의 지급시(地給市)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촨은 닝샤후이족자치구인민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중심도시이다.

뚜렷한 지역 특색

중국대륙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인촨은 닝샤후이족자치구의 중심도시이며, 3개 구(區)와 2개 현(縣), 1개 시(市)로 나뉘어져 있다. 인촨시 면적은 9025.38㎢, 전체인구는 309만명, 시내면적은 185㎢이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인촨시는 3만년 전 구석기시대 때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112년 도시가 건설되었고, 1038년 시샤(西夏)왕국 건국 후, 189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한 전체 중국의 124개 문화역사 도시 중 하나이다.

발전의 조건우위

●편리한 교통

중국 동북, 화북지역과 서북지역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인촨을 경유해 아랍국가를 비행하는 것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경유하는 것보다 20%의 경비 절감효과가 있고 비행시간 역시 5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촨은 서북지역의 중요한 항공물류 환승센터이자, 관광객 집산지(集散地)이다.

●풍부한 자원

중국 화력발전 전력공급의 기지이자, 인촨 – 위린(榆林) – 오르도스로 연결되는 에너지 골드트라이앵글 지역은 전 중국 에너지원 매장량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닝둥(寧東)에너지화학공업기지는 중국 14개의 1억 톤급 대형 석탄생산기지 중 하나로서 조사된 매장량이 386억 톤에 달한다. 풍력, 태양광 역시 풍부하여 560.13억 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1인당 전기생산량으로 전국 제일이다.

●최적의 환경

우수한 인문환경으로 예로부터 인촨은 이민(移民)도시로 유명하다. 개방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인촨시는 다른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화합이 잘되는 지역이다.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습지면적이 5.31만 헥타르에 달하며, 대기의 질 또한 74개 중대형도시 중 10위에 꼽히고 있다. 제도 · 행정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중국 내 도청소재지 중에서도 선행적으로 "행정심사 서비스국" 을 설립했다. 25개 부서의 153항목 심사가 "한 부서의 도장 한번" 으로 관리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최고의 환경시범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견고한 인프라시설

현대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촨의 지역경제총생산량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빠른 공업화로 에너지화학공업, 친환경방직, 제조설비, 신소재 등 산업이 결집됨에 따라 효과가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현대농업의 안정된 발전으로, 시설원예, 유기농 쌀, 수출용 야채 등 특화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도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상업에서 비즈니스물류, 금융, 문화, 관광업으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물류네트워크, 게임 · 애니메이션 관련 소프트웨어, 항공 등 신흥산업의 발전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주거, 쇼핑, 휴식, 교육, 의료는 인촨에서" 라는 브랜드파워로 인접지역 2,000만 인구를 매료시키려 한다.

●역사상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한 인촨

인촨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실크로드 프로젝트(一帶一路)" , 닝샤내륙개방형경제시험구, 황하유역도시군(群) 개발 등 정책적 핵심지역으로서의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3회에 걸쳐 성공리에 개최한 중국–아랍경제무역포럼 및 제1회 중국–아랍박람회의 영구 개최지로 120여 개 국가 및 지역, 5000여 개의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요르단 등 1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할랄식품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6개의 지역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위에하이만(閱海灣)중앙비지니스지구, 인촨강변신지구, 인촨종합보세(保稅)지구, 공항경제지구 등 개방의 매개체를 닝샤후이족자치구 차원의 전략으로 상승시켜 새로운 개방 · 발전의 물결에 순응하고 있다. 인촨경제기술개발지구, 닝샤친환경방직산업원, 인촨과학기술원 등 산업플랫폼의 발 빠른 조성을 통해 빅데이터 · 스마트 · 클라우드 컴퓨팅 · 전자상거래 · 금융 · 건강레저 등 신산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인촨을 만들어 갈 것이다.

NEAR 회원단체 참가자 여러분, 인촨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이자 투자의 핫스팟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인촨에 직접 방문하시어 인촨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로 사업이 번창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2015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개최

중국 산둥성

1. 행사명칭

"해양식량창고" 홍보회

2. 행사취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해양기술, 경제정보교류, 동북아지역지방 및 세계 각 국가의 해양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해양 신흥 산업발전 분야 중 정책, 경제, 기술 등의 방면에서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식량창고" 조성을 추진

3. 행사주제

협력 강화로 "해양식량창고" 건설 추진

4. 행사주최, 주관

– 주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해양어업분과위원회
– 주관 : 산둥성 해양어업청, 산둥성 외사판공실, 웨이하이(威海)시 인민정부

5. 행사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5년 10월 예정
– 장소 : 산둥성 웨이하이

6. 초청인원 및 참석대상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회원 지방정부 대표
(2) 산둥성정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간부
산둥성 정부유관부서(산둥성 과학기술청 · 해양어업청 · 외사판공실 등)
산둥성 연안도시 해양어업부서 책임자
(3) 해양어업과학연구기관 : 국내외 해양어업분야 전문가, 학자
(4) 국내외 언론매체 기자 등 총 100여명 참석 예정

7. 행사일정(안)

일시	시간	주요내용
1일차	전일	회의참석자 등록
	18:00–20:00	환영만찬
2일차 (오전)	8:30–12:00	제1세션 개막식(동시통역) 1. 산둥성 간부 축사 2. NEAR사무총장 축사 3. 단체촬영(커피브레이크 15분) 4. 회원지방정부 발표
2일차 (오후)	14:00–17:30	제2세션 산둥성 "해양식량창고" 홍보 1. 기조연설(왕쇼우신 산둥성 해양어업청장) 2. 전문가포럼 NEAR회원지역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바다목장, 원양어업, 친환경양식, 수산품가공 등 기술과 경험을 소개
3일차	8:30–12:00	1.관련기업 현장시찰 2.중국–해외기업의 현장 매칭
	오후	행사종료 및 참석자 귀국

8. "해양식량창고" 홍보내용

"해양식량창고" 개념 생성의 배경

동북아지역은 경지, 담수자원 등 생산조건 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속적인 식량증산에 대한 어려움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식량안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그 양이 많고, 재생능력 또한 크기에 어업발전과 함께 대체식량, 식량자원 절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양식량창고" 홍보회 운영방향

이번 "해양식량창고" 홍보 행사에 NEAR 회원지역 및 과학연구기관, 관련기업 대표들의 산둥 방문을 요청하며, 주요 운영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회원지역 및 과학연구기관, 관련기업이 경험한 바다목장 운영, 원양어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둘째, 참석자들이 현지시찰과 산둥성 "해양식량창고" 건설 선행시범구 및 우수기업을 시찰한다.
셋째, 현지시찰 후 각 국 기업들간 현장 연결을 통해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산둥성에서 제안한 "해양식량창고" 전략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양식을 중심으로 증식, 조업, 가공, 레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홍보회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간 수산양식업, 어업증식, 해양조업, 수산가공업, 어업레저산업 등 다섯 가지 주도 산업간의 협력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동북아지역 어업의 친환경화, 규범화, 조직화, 표준화,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 어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1.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제11회 환경분과위원회를 2013년 10월에 토야마현에서 개최(한 · 중 · 일 · 러 4개국 8개 자치단체 참가)하였고, 활동상황 보고를 비롯한 개별 프로젝트 성과보고와 2014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일본 토야마현이 선출

2. 개별 프로젝트 실시 상황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된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음. 그리고,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는 웹사이트에 게재

※ 홈페이지: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

(1) 제8회 국제환경 포럼 '국경 없는 자연' (제안자 : 러시아 연해변경주)

a. 시　기 : 2014년 10월 23일~24일

b. 장　소 : 블라디보스토크시

c. 참가자 : 400명정도(환경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 전문가 등)

d. 내　용 : '환경과 비즈니스:대립에서 상호이해로' 라는 테마로 지역경제의 집약적 발전과제 및 오염물질의 국경초월 문제를 포함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제안자 : 일본 토야마현)

a. 시　기 : 2014년 8월 20일~21일

b. 장　소 : 중국 랴오닝성

c. 참가자 : 4개국 9단체(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중고등학생 96명

d. 내　용 : 각 참가단체 대표의 활동 보고, 물새서식지 견학, '2014 환경선언' 발표 등

(3) 해변의 표착물 조사와 표착물 아트 제작(제안자 : 일본 토야마현)

a. 시　기 : 2014년 가을(표착물 조사), 연중(아트 제작)

b. 장　소 : 동북아시아지역 해안가

c. 참가자 : 3개국(일본, 한국, 러시아) 18개단체

d. 내　용 : 해안표착물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바다 환경을 지키자' 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해안표착물의 종류별 개수와 중량을 조사하고, 표착물을 활용한 아트 제작

(4) 동북아시아지역 환경 포스터 전시회(제안자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a. 시　기 : 2014년 10월~12월

b. 장　소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c. 참가자 : 4개국(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8개단체

d. 내　용 : 동북아시아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이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모집하고 우수작품 전시

3. 향후 활동계획

2015년에는 제12회 환경분과위원회를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 예정

Medivalley

01

MEDICITY DAEGU

의료산업의 허브 대구

Medivalley

의료산업의 허브 대구

1. 정치의 중심, 대구

대한민국 3대도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2. 경제의 중심, 대구

- 전통적인 섬유산업으로부터 기계,
  자동차 부품, IT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 1938년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발원지

DAEGU

3. 미래산업, 의료

-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
- 5개 의과 대학병원과 고급 의료인력 보유

4. 미래신성장 산업창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한국 의료 R&D산업의 중심도시로 비상

Medivalley

접근성

Medivalley

01. 정주환경 | 02. 인센티브

고품격 정주여건

고품격 도시 DAEGU

최상의 교육여건	글로벌 도시	스포츠 도시	문화 도시
• 2015 대경수능만점자 6명(총29명) • 학업성취도 전국 최상위권 • 대구국제학교, 대구과학영재학교, 대구일과학고 등 • 단지 반경 20km내 대학·대학원 18개소, 전문대 15개소	• 2010 세계소방관대회 • 2012 세계곤충학회총회 • 2013 세계에너지총회 • 2015 세계물포럼	• 2002 FIFA 월드컵(준결승전) • 2003 하계 유니버시아드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프로스포츠팀 - 야구 : 삼성 라이온스 - 축구 : 대구FC, 포항스틸러스	• 국제오페라축제 • 국제뮤지컬 축제(DIMF) • 한방축제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외 20개 ※ 대구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등 1,000석 이상 대형공연장 9개소

Medivalley

01. 정주환경 02. 인센티브

의료인프라 _ 병원, 의료교육기관

병 원
- 종합병원 29개 (13,273병상)
- 치과병원 23개
- 한방병원 20개

의료교육기관
- 의과대학 5개
- 약학대학 4개
- 한의대 2개
- 의료관련학과 : 227개
  - 교원수 : 2,582명, 학생수 : 17,818명

경북대학교병원 (since 1907)
- 937병실, 칠곡 490병실(암,노인성질환)

영남대학교의료원 (since 1978)
- 929병실, 암전문병원 400병실 신축계획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since 1899)
- 1,000병실
- 1,033병실 신축(2014년 완공)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since 1979)
- 775병실

대구한방병원 (since 1983)
- 95병실

※ 국내전문인력의 20% 배출
※ 인구대비 의과대학수 전국1위

Medivalley

01. 정주환경 02. 인센티브

네트워크 구축

국책연구기관
- 국립암센터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외 13개 기관

대 학
- KAIST의과대학원
- 고려대
- 일본고베대학
- 일본지치의학대학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 경북대학교

⋮

외 13교

협 회
- 한국제약사협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재미한인과학자협회(국외)
-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 재캐나다한인과학자협회(국외)

⋮

외 4기관

Medivalley

02

MEDICITY DAEGU

의료 R&D의 허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첨단의료복합단지

"생명과학산업의 글로벌 상업화 허브"

비전

목표

최적의 의약품 ·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여건 조성

핵심전략

- Solution Provider 역량강화
- 국책연구소 및 기업 유치
- 글로벌 수준의 인력 확보
- Synergy 창출 Network 구축
- 범국가적인 정부지원 확보

Medivalley

추진경과

Medivalley

2012
- 06 연구시설용지 일반분양

2013
- 03 커뮤니케이션 준공
- 11 정부핵심시설 완공

2014
- 12 한국뇌연구원준공

2015
- 0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준공
- 09 3D융합기술지원센터 준공

2011
- 10 정부시설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착공

2010
- 01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 확정
- 1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2009
- 08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 12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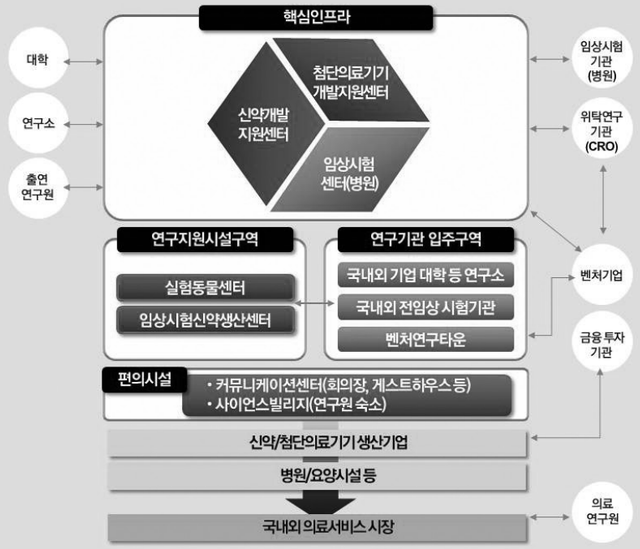
11

Medivalley

추진모델

"첨단의료복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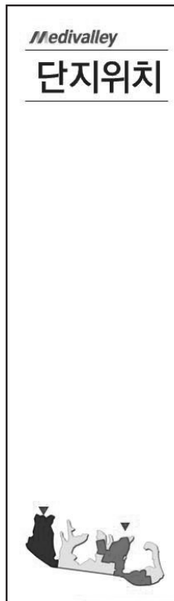
- 정부지원
- 대구시지원
- 민간투자



12

Medivalley

단지위치



Medivalley

핵심연구지원인프라

시설명	연면적	주요기능	비고
신약개발지원센터	22,998㎡ (지하1, 지상9층)	신약후보물질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미래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18,200㎡ (지하2, 지상5층)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산업부
실험동물센터	13,700㎡ (지하1, 지상3층)	동물실험시스템 제공,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복지부
임상시험신약 생산센터	9,700㎡ (지하1, 지상4층)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복지부
커뮤니케이션센터	17,825㎡ (지하1, 지상9층)	전략기획본부 편의시설	대구시

14

Medivalley

03

MEDICITY DAEGU

연구 및 제조분야 입지

Medivalley

제조분야입지

1. 석문전기㈜	22. ㈜메디피아이앤씨
2. ㈜씨엠테크	23. ㈜하이센서앤로봇
3. ㈜보원덴탈	24. ㈜대원GSI
4. ㈜E.O.S	25. ㈜이노백테크놀러지
5. ㈜한의	26. ㈜우창엔지니어링
6. ㈜제이월드	27. ㈜하이로시
7. ㈜대류	28. ㈜파인메딕스
8. ㈜한국센서	29. ㈜알앤유
9. ㈜한이IT	30. 덴스타㈜
10. ㈜공성	31. ㈜신라시스템
11. 라파바이오㈜	32. ㈜에이케이메디
12. ㈜젠탑스	33. ㈜토탈소프트뱅크
13. ㈜금룡테크	34. ㈜케이엠에프
14. 에인에이㈜	35. ㈜텐티스
15. ㈜제이디자인웍스	36. ㈜젬텍
16. ㈜성도테크	37. ㈜스페이스
17. 성모의지	38. ㈜세양
18. ㈜아이엠티코리아	39. ㈜인더텍
19. ㈜비전사이언스	40. ㈜명문덴탈
20. ㈜유바이오메드	41. ㈜ 일에스티플랫폼
21. ㈜ 엔젤테크	42. ㈜ 마이크로엔엑스
	43. ㈜ 벡트론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Medivalley

연구기반입지

핵심 연구 지원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실험동물센터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국책기관
- 한국뇌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 3D융합기술지원센터, 레이저응용기술센터
- 실험동물자원은행

편의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
- 사이언스빌리지(연구원기숙사)

입주기업
한림제약㈜, ㈜동성제약, 대우제약㈜, ㈜한국파마
라파바이오㈜, ㈜루트로닉, ㈜인성메디칼
㈜이노백테크놀러지, ㈜세신정밀, ㈜유니메딕스
㈜한국메디벤처센터, KTC

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입주국책연구기관

한국뇌연구원 -준공식 : 2014. 11
-연면적 : 87,100㎡
-3대중점(뇌기초, 뇌질환, 뇌공학) 연구

3D융합기술지원센터
-건축기간 : 2012~2017
-연면적 : 3,491㎡
-의료, 3D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료기술 시험교육훈련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축기간 : 2013~2015
-연면적 : 11,550㎡
-천연물 신약개발 특화, 신약센터 및 한의학관련 연구기관, 임상시험기관과 연계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사업기간 : 2015~2019
-연면적 : 7,300㎡
-유전자 정보분석, 개인맞춤형 진단·치료, 기술개발 IT·BT융복합 연구

Medivalley

기타지원시설

한국뇌병원 -사업기간 : 2016~2018년
-주관기관 : 한국뇌연구원

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
-사업기간 : 2017~2023년
-주관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대구식약청
-사업기간 : 2015~2018년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약청

산학융합지구
-사업기간 : 2015~2019년
-주관기관 : 산학융합본부(컨소시엄 구성)

실험동물자원은행
-사업기간 : 2015~2018년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 생체시료 자원화

임상시험센터
-사업기간 : 2016~2018년
-주관기관 : 첨복재단, 지역종합병원

편의시설
• 사이언스빌리지
• 커뮤니케이션센터

Medivalley

04

MEDICITY DAEGU

인센티브

Medivalley

첨복특별법

풍부한 인센티브

I

1	의료법	• 외국 의료인 -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2	건강보험법	• 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기술을 임상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임상시험비 대폭 절감)**
3	약사법 의료기기법	• 생산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및 신고 간소화**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4	생명윤리법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용**
5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2→5년)**
6	특허법	•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Medivalley

세·재정 지원

풍부한 인센티브

II

01. 정주환경 | 02. 인센티브

Medivalley

기타 특별지원

풍부한 인센티브

III

01 R&D 지원사업
첨복단지내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개발 R&D 지원사업('15, 150억원)

02 연구인력 및 인프라
맞춤형 인력양성,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 활용

03 지원체계 기반 의료 R&D
대구시 의료 R&D 대형 프로젝트 참여
- 광역 선도산업(의료기기, 실용로봇 등)
- 신성장 동력 육성사업(로봇, 3D융합산업, 레이저 등)

04 (사)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 첨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시제품 임상지원 업무협약체결('12. 7. 10)

05 메디시티기금 및 의료산업육성 펀드
메디시티기금(120억원 조성, 500억원 목표) 및 의료산업육성 펀드(170억원) 조성

06 One-stop 행정지원
분양에서 입주까지 전담공무원 지정

07 대구공동임상연구 윤리위원회(IRB)
대구 5개 대학병원 공동임상지원체계 구축

23

Medivalley

감사합니다.

MEDICITY DAEGU

Medivalley

21세기 글로벌 첨단 의료기업은 메디벨리 대구 에서!

Introduction of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Contents

1. Introduction of WTA
2. UNESCO-WTA Cooperative Project
3. WTA Yearly Events in 2015

Introduction of WTA

1. Introduction of WTA

WTA launched as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 Daejeon Metropolitan City established the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in 1998 with the purpose to connect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gional development innovation.

A Global Network** leading a **Sustainable Technopolis Development

- An **official international NGO** of **UNESCO** since 2006 **UNESCO-WTA cooperative project** (2006~) towards sustainable **technopolis development** and **science city governance** in a global context.

UNESCO-WTA

Missions

01st *To be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 ✓ Establishing a global Technopolis network
- ✓ Promot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chnopolis
- ✓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expert advice and capacity building

02nd *To be a worldwide network for technopolis development*

- ✓ Accelerating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 ✓ Sharing first-hand information and experiences in sustainable STPs development
- ✓ Spread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in developing technopolis and sharing knowledge

03rd *To be a hi-tech business network between innovation players*

- ✓ Cultivating globally networked entrepreneurship and maxim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field of innovation.
- ✓ Promoting hi-tech business among innovation stakeholders and strenthening the technology transfer
- ✓ Strengthening leadership and network of leaders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Vision

Global Network Leading to Sustainable Technopolis Development

Objectives

- **Connecting**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gional innovation**
-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 good partnership** on technopolis development
- Achieving a shared development through **knowledge exchange & technology transfer** among science cities
- Assisting the members in building **sustainable technopolises** with a global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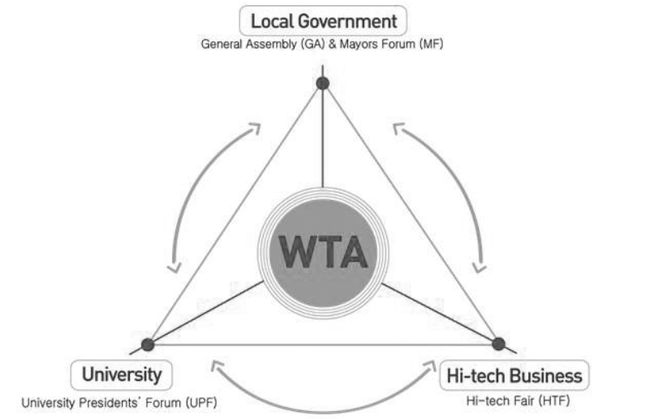
Major Activities

Triangle Approaches

Local Government	**General Assembly (GA) Mayors' Forum (M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xchanging advanced experiences in term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ward a sustainble technopolis.
University	**University Presidents' Forum (UPF)**	Facilitating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and promoting the knowledge exchange among core universities(HEIs) located in technopolises.
Business	**Hi-tech Fair (HTF)**	Promoting cutting-edge technology transfer and creating hi-tech business network among WTA members and their innovation stakeholders.

Structure

: Triangle approach to Technopolis development



- **WTR** — leading journal for sustainable STPs development
- **Category II Center** — local innov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 **Daejeon Global Innovation Forum** — forum on innovative local develop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General Assembly (GA) & Mayors' Forum (MF)

1998

1st General Assembly
September 16-17, 1998 / Daejeon, Rep. of Korea
The Inaugural General Assembly of the WTA

2nd General Assembly
October 18-20, 2000 / Nanjing, China
New and High-tech Industries in the 21st Century

2000

3rd General Assembly
December 3-4, 2002 / Nuevo Leon State, Mexico
Emerging Technology

4th General Assembly
September 1-3, 2004 / Uppsala, Swede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uilt on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Science and Society

2002

5th General Assembly
July 26-28, 2006 / Brisbane, Australia
Smart Cities ensure Smart Futures

6th General Assembly
October 9-11, 2008 / Daejeon, Rep. of Korea
Towards Creative City :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Science City

7th General Assembly
September 1-4, 2010 / Hsinchu, Chinese Taipei
Science City'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bal Climate Change

8th General Assembly
September 10-12, 2012 / Gliwice, Poland
Innovation in times of Global Financial Crisis

9th General Assembly
November 12-14, 2014 / Daejeon, Korea

2004 2006 2008 2010 2012

University Presidents' Forum (UPF)

1st UPF

2nd UPF

3rd UPF

4th UPF

1st University Presidents Forum
May 22-23, 2002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p. of Korea

2n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December 3, 2002 / Monterrey, Nuevo Leon State, Mexico

3r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May 28-29, 2004 / Dortmund University of Technology, Germany

4th University Presidents Forum
September 1-3, 2004 / Uppsala University, Sweden

5th University Presidents Forum
October 9-11, 2008 / Hanbat National University, Rep. of Korea

6th University Presidents Forum
September 9-11, 2010 /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Chinese Taipei

7th University Presidents Forum
September 11, 2012 / Silesian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8th University Presidents Forum
November 11, 2014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5th UPF

6th UPF

7th UPF

WTA Daejeon Hi-tech Fair

1st Techno-Mart
November 10-13, 1999 / Daejeon, Rep. of Korea

2nd Techno-Mart
November 7-9, 2001 / Daejeon, Rep. of Korea

3rd Techno-Mart
October 28-30, 2003 / Hefei, China

4th Techno-Mart
October 26-28, 2005 / Novosibirsk, Russia

5th Techno-Mart
April 14-16, 2008 / Dubai, United Arab Emirates

6th Hi-Tech Fair
October 12-16, 2009 / Daejeon, Rep. of Korea
Technology Convergence :
High-technologies towards Green Growth

7th Hi-Tech Fair
October 10-12, 2010 / Daejeon, Rep. of Korea
Green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8th Hi-Tech Fair
November 16-18, 2011 / Daejeon, Rep. of Korea
Fusion Technology as New Growth Engine

9th Hi-Tech Fair
May 22-24, 2012 / Daejeon, Rep. of Korea
Innovation across border :
Hi-Technology and SMEs in Concert

10th Hi-Tech Fair
September 27-29, 2013 / Daejeon, Rep. of Korea
Creative Industry and Entrepreneurship Ecosystem

11th Hi-Tech Fair
November 12-13, 2014 / Daejeon, Rep. of Korea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s a Base of Creative Economy

1st Techno-mart

2nd Techno-mart

3rd Techno-mart

4th Techno-mart

5th Techno-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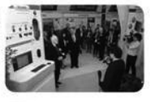
6th Hi-tech Fair

7th Hi-tech Fair

8th Hi-tech Fair

9th Hi-tech Fair

10th Hi-tech Fair



World Technopolis Review

✓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 World Technopolis Review

Gateway
Enhancing comprehensive Research & Development of STPs, Technopolis, and Innovation Cluster in the global context.

Community
Sharing the know-how of expert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policy makers and business people in the collaborative context.

Base Camp
Dispatching expert group to meet emerging needs for technical assistance in the sustainable context.

✓ Vision
- Leading Journal for Sustainable STPs Development

✓ WTR consists of invited papers, research papers, best practices

Partners

International Network

The WTA is promoting multilateral communications and interactive cooper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awareness that important synergies and complemetary elements exist between them with a view to promot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fficial relationship with the UNESCO was established on April 2006, and it was conducted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o upgrade the knowledge of future mangers of STPs and entrepreneurs in developing countries.

UNESCO-WTA Cooperation Project

ASPA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Science Park Network

Through this network for the science park managers in member cities, it has contributed to capacity building in the management of technopolis in many ways. In particular, we can enhance the synergy between innovation players in cities-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companies.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WTA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

Science Park Network

Through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cities of each region, we can take the role of the Technopolis in initiating the development of a network of science cities at regional levels. To strengthen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it can be extremely good platform to support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WTA members and other regions.

INSME
International Net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WTA and INSME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s accepted and signed on June 2010, so as to facilitate the mutual exchange of knowledge, expertise and good practices: to improve the reciprocal knowledge, the online and off-line diffusion of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events, activities and programmes on SMEs and Technopolis development.

UNESCO-WTA

Cooperative Project(2005~)

2. UNESCO-WTA Cooperative Project

Major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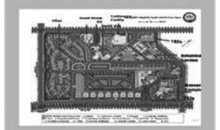
Capacity Building

- Training Workshop
- Seminars
- Conferences

Technical Assistance

- Policy advice in science park and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ecosystem building

Pilot Project



- Consultancy on STP development
  - Africa
  - Arab Countrise
  - Asia-Pacific Regions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apacity Building

Year 2005
Science City Governance

Year 2006
High-tech Clusters in Global Context

Year 2007
Towards Sustainable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Role of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in Techno Park

Year 2014
Universities and Development of Science City / Science Parks

Year 2008
Towards Creative Growth of Science Park and Innovation Cluster

Year 2009
Green Growth based on the Science Park Initiatives

Year 2010
Triple Helix Model of Innovation : Government-Academia-Industry

Year 2011
Science and Technology Park(STP)-Innovation Ecosystem

Year 2012
Valorization : Tangible Benefits from S&T P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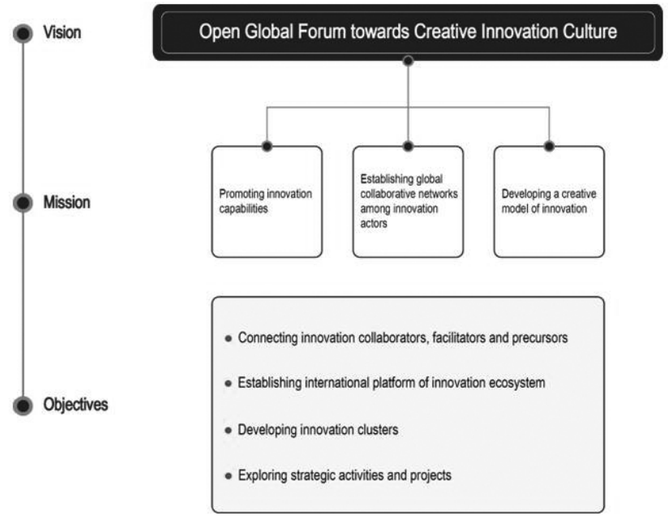
Year 2013
R&BD 3.0 :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the Creative Economy

Technical Assistance : Pilot Projects

1. **Mubarak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1st mission (18-26 July 2007) / 2nd mission (23-24 January 2008)
2. **Nairobi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1st mission (21-25 July 2008)
3. **PUSPIPTEK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1st mission (22-27 February 2009) / 2nd mission (24-30 January 2010)
4. **Sri Lanka Nanoscience Park**
   • 1st mission (15-20 November 2010)
5. **Science and Technology Park Development in the Univ. of Gambia**
   • 1st mission (22-28 November 2010)

6. **Developing the Model of ICT High-Tech Innovation Cluster in Mongolia**
   • 1st mission (11-14 April 2011) / 2nd mission (10-12 November 2011)
7. **Costa Rica National Science Park**
   • 1st mission (27-30 June 2011)
8. **Pakista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ark**
   • 1st mission (30 January - 2 February 2012)
9. **Techno-Ecological Park of USME, Colombia**
   • 1st mission (31 January - 9 February 2013)
10. **Sheda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SHESTCO)**
    • 1st mission (26 - 30 August 2013)
11. **Revitalization of PUSPIPTEK towards ISTP**
    • 1st mission (29 October – 3 November 2013)

Sharing Experiences and Networking : Daejeon Global Innovation Forum



WTA
Yearly Events in 2015

22nd-25th September 2015
Daejeon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Events

2015 Daejeon Global Innovation Forum *In celeb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UNESCO*

Topic : Sharing Innovation's Benefits
Date : 23rd-24th September 2015
Venue : Daejeon Convention Center, Daejeon, Republic of Korea

The 12th WTA Daejeon Hi-Tech Fair

Theme : Sharing Innovation's Benefits of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Date : 23rd-25th September 2015
Venue : Daejeon Convention Center, Daejeon, Republic of Korea

2015 UNESCO-WTA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Topic : Establishing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based on STP
Date : 22nd-25th September 2015
Venue : Daejeon Convention Center, Daejeon, Republic of Korea

Schedule

9.22 (Tue)	9.23 (Wed)		9.24 (Thu)			9.25 (Fri)
2015 UNESCO-WTA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2015 Daejeon Global Innovation Forum	12th WTA Daejeon Hi-Tech Fair	2015 UNESCO-WTA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2015 Daejeon Global Innovation Forum	12th WTA Daejeon Hi-Tech Fair	Post Tour

Thank You!

■ 엑스포 개최배경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Industry Fair

우리도는 유기농업의 최적지

- 국토의 중심에 위치, 소음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
- 2012 전국기후변화 평가결과(국립환경과학원)
  충북이 가장 안정한 곳으로 입증
- 3대국립공원, 2대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을 고루 갖춘 유기농업의 전초기지**
- **1980년대부터 흙살림,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 시작**

■ 엑스포 비전 및 목표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Industry Fair

비전

인류의 무병장수 꿈과 생태적 삶 구현

- **2020년 유기농·무농약 비중 20% 달성**, 유기농산업 선도
- 유기농특화도 실현을 통한 충북의 세계적 위상 확립

목표

ORGANIC(유기농) 충북 브랜드 구축

- **유기농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 발전 방향 제시
- **유기농산업 메카 충북 괴산**을 중심으로한 유기농특화 추진
-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산업 등과 함께 **6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엑스포 기본개요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행사명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개최기간	2015. 9. 18(금) ~ 10. 11(일), (24일간)
개최장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괴산군청앞)
주 제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
주 최	충청북도, 괴산군, ISOFAR 공동 개최
규 모	250개 기업 및 단체 유치(국내 190 / 해외 60) 예상관람객 : 총 66만 명(국내 64, 국외 4)

■ 엑스포 주요 프로그램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유기농의 발전을 추구하는 학자를 비롯해 유기농 생산자, 일반 관람객까지 전 인류가 참여하는 종합 엑스포

전 시	산 업	컨벤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인류에게 전파해야 하는 기본적인 유기농 지식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실천사례 제시	전 세계 250개 기업과 8백여명의 바이어가 만나는 비즈니스 창출 공간	80개국 3천여명의 유기농 전문가들의 정보교류 및 유기농 네트워크 강화	다채로운 이벤트 및 체험을 통한 유기농적 삶의 실천적 가치 전달
• 10대 주제전시관 • 7개 야외전시장 • 유기농 의미(醫·美)관 • 국제관 & 지자체관	• 국제유기무역박람회 • 유기농 판매장	• ISOFAR 유기농 국제심포지엄 • IFOAM 연계 컨벤션 • 국내학술대회 • 유기농 정책포럼	• 자연친화 체험 프로그램 • 유기농 체험 프로그램

■ 행사장 조감도

■ 요청사항 및 기타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협조 요청사항

- 엑스포 홍보 : 회원단체 지방정부 유관기관, 일반주민 대상
- 홈페이지 : www.2015organic-expo.kr (한·영·중·일)

기 타 (입장료)

- 일반 10,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2,000원
- 사전예매·단체권(일반) 8,000원 * 단체 :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입장권 요금의 50%, 지역 상품권으로 사용

2015 국제농업박람회 개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1 개최개요

2015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 **행 사 명 : 2015국제농업박람회**
  - 영문 : 2015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 **기　　간 : 2015. 10. 15.(목) ~ 11. 1.(일) / 18일간**
  - 국제 비즈니스데이 : 10. 15 ~ 10. 19(5일간)
- **장　　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 **주　　제 :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
- **규　　모**
  - 참가규모 : 20개국 350개 기관 및 업체 (외국 100, 국내 250)
  - 목표입장객 수 : 700,000명 (내국인 665,000/외국인 35,000)
  - 행사장 규모 총면적 : 약 343,680㎡ (순수 행사장 규모 : 299,850 ㎡)
- **주　　최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23개 기관 · 단체**

2 박람회 주요 특징

2015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국제농업박람회 주요 특징

국내유일 종합적인 농업박람회

- 농업의 특정분야 행사는 많으나, 농업을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2002년부터 산발적인 농업관련 행사를 집중발전
-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로 도약

최적의 국제 비즈니스 박람회장

- 다채로운 소득창출형 컨셉 도입
- 수출계약, 구매약정, 바이어 상담, 현장판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 공간 제공
- 20개국 350개 기업, 70바이어 참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박람회

- 5일이내 개최 단일주제 박람회와 차별화
- 18일간 비즈니스, 전시, 체험이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최고의 체험학습장으로 자리 매김

13년간의 개최노하우와 기반시설 보유

- 2012국제 및 국내박람회(12회) 성공 개최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력과 노하우 100%활용 (농업전문인력 700여명이 준비)
- 주차장, 전시관 공원등 기반시설 완비

3 박람회장 구성 (1)

2015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3 박람회장 구성 (2)

2015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담양과 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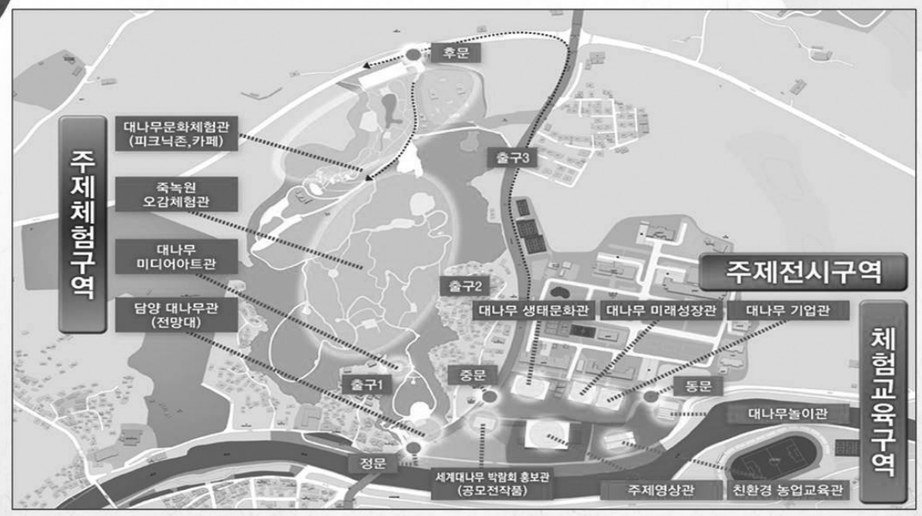
담양 = 대나무

담양은 대나무 관련 역사와 규모, 생태적, 문화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로 뛰어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자랑

1.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요

기 간	2015. 9. 17.(목) ~ 10. 31.(토), 45일간
주 제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장 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일대
면 적	313,023㎡(전시 총 면적 17,743㎡)
관람목표	90만명(내국인 88, 외국인2)
내 용	대나무 문화 · 산업 국제교류전, 학술회의, 전시 등
주최/주관	전라남도, 담양군, 산림청 공동 개최

2. 전체회장 구성



대한민국 경상북도

제11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의 경제 · 인문관계자를 초빙하여 동북아 공동관심사인 경제 · 인문분야 공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 행사개요

○일　시 : 2015. 8.26(수) ~ 8.28(금) / 2박 3일

○장　소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주　최 : 경상북도 경제 · 인문교류분과위원회

○참석규모 : NEAR 회원단체 참가자 등 50~60명 정도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회의, 실크로드대축전 2015 관람

□ 주요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일차(8.26)	입국/환영만찬	
2일차(8.27)	분과위원회 회의 – 기조강연, 주제토론, 사례발표, 특강 등	
3일차(8.28)	실크로드대축전 2015 관람/출국 및 환송	

※ 세부일정 추후통보

□ 지원사항

○개최기간 중 8. 26 ~ 8. 28(2박 3일간) 숙박비 및 식비(2인 기준)

※ 3인 이상 참가 시, 2인외 숙박비는 본인 부담(식사는 제공)

구 분	8. 26(수)	8. 27(목)	8. 28(금)
조식	X	O	O
중식	X	O	O
석식	O	O	X
숙 박	O	O	X

○분과위원회 개최 기간 중 소요되는 이동 · 시찰 경비

※ 참가단체 비용부담 : 왕복항공료, 행사지역 및 기간외 경비 등

□ 참가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 글로벌통상협력과 또는 NEAR 사무국

○ 신청기한 : 2015. 5.29까지

○ 자치단체 발표자료 제출 : 2015. 6.19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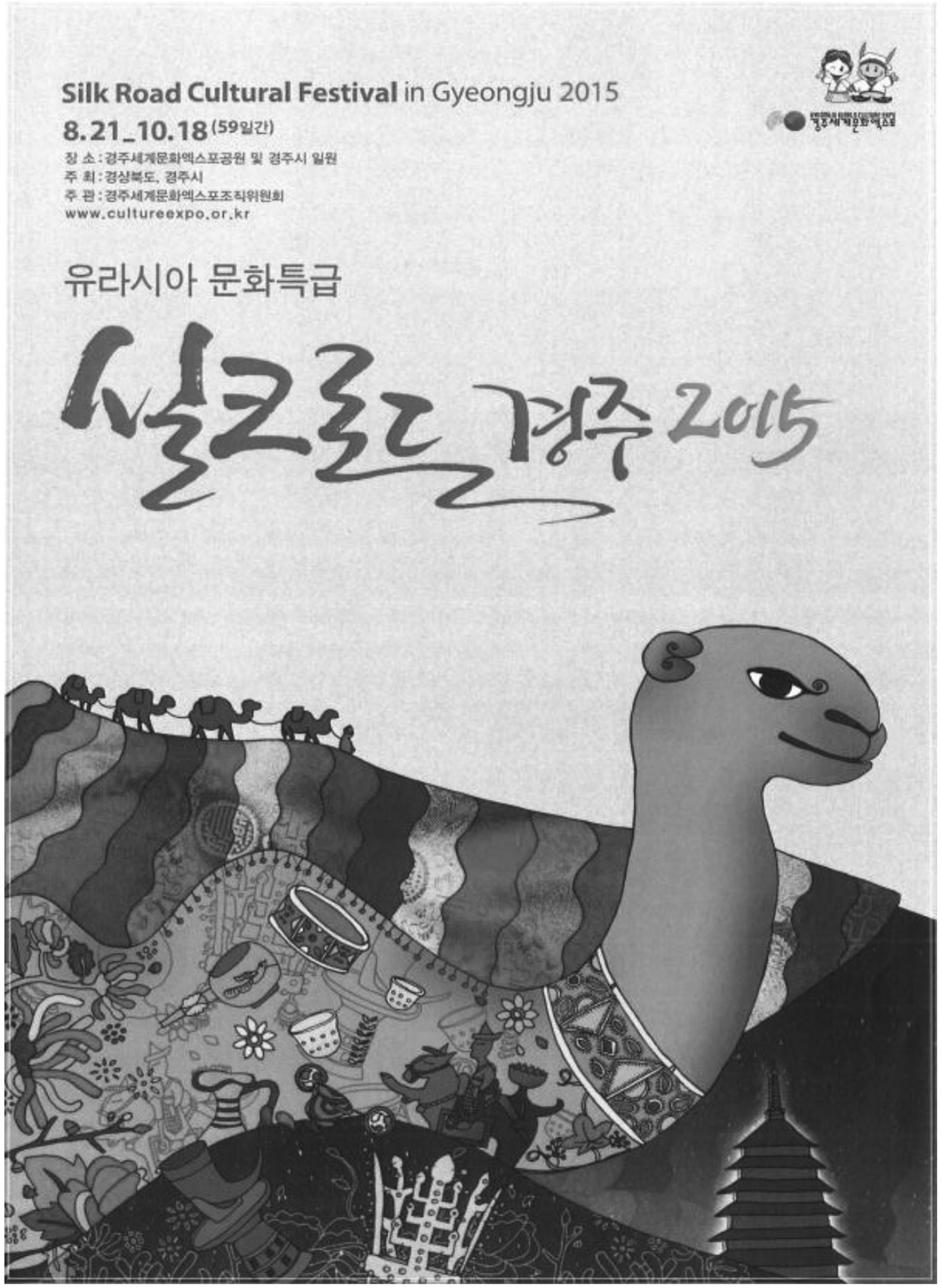
· 발표내용 : 주제와 관련된 성공 · 활성화 사례

· 발표자격 : 분과위원회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단체

○ 참가인원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당 2명으로 제한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몽골 움느고비아이막 소개

움느고비아이막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워크숍 참가자 여러분께 몽골국의 움느고비아이막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실무자워크숍 주최 측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공룡의 고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움느고비아이막은 역사와 문화유산 또한 풍부합니다. 움느고비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과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움느고비아이막의 개요

움느고비아이막은 몽골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165,000㎢로 몽골에서 가장 큰 아이막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5개솜(郡)과 58개면(面)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바양홍고르, 우부르항가이, 돈드고비, 도르노고비 아이막과 각각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중심도시인 달랑자드가드시는 수도 올랑바타르시에서 57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움느고비아이막에는 19,000 세대, 59,6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8,800,000 투기릭입니다.
우리 아이막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는

– 책임 있는 광산
– 안정적인 관광
– 목축업 입니다.

타왕털거이, 어요털거이, 나링 소하이트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이며 석탄, 구리, 금을 채굴하여 자급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수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광산

움느고비아이막은 현재 80개 광구에 대해, 164개의 광물자원조사허가권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총 면적은 472,461.3ha이며, 그 중에서 석탄이 71.48%, 금과 구리가 23.894%, 형석이 0.39%, 기타 금속이 4.06%, 비금속이 0.1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막에서 35개의 기업이 채굴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어요털거이, 타왕털거이, 에르데네스 타왕털거이, 에너지 리서스 등 12개의 광산회사가 정기적인 광산 채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왕털거이, 나링 소하이트, 어요털거이 등의 광구는 몽골의 전략적 광산기지이며, 움느고비아이막의 사회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석탄 채굴량과 국내수요 및 이와 관련된 해외차관 규모는 최근 5년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석탄의 수요가 몽골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의 일정 부분을 움느고비아이막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관광분야

움느고비아이막은 공룡화석, 암각화 등 고고학적 유물이 많으며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0%는 움느고비아이막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 역사가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열링 암'이라고 불리는 얼음 협곡, '홍고링 엘스' 모래 언덕, 몽골의 그랜드 캐년이자 공룡 화석의 발굴지인 '바양작' , '고비고르왕사이항 국립공원' , '헤르멩 차브' 협곡 등 관광자원이 많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낙타여행, 종교여행, 조류관찰, 야생동물 관찰 등 자연생태체험 및 자연생태 탐사관광을 육성시켜 왔으며, 야크 축제, 낙타 축제, 고비 마라톤대회, 말 축제, 말경주, 낙타젖 축제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축업

움느고비아이막의 경제발전에 목축업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 가축(말, 염소, 낙타, 소, 양) 수는 180만 마리이며, 그 중에서 낙타가 112,700마리, 말은 66,300마리, 소는 16,100마리, 양은 397,600마리, 염소는 120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5,216세대, 9,449명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쌍봉낙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낙타의 개체 수를 늘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낙타 축제, 낙타 젖 축제, 낙타 폴로대회, 낙타 경주대회를 개최하고 낙타 새끼가 생긴 낙타의 주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마리 낙타경주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쌍봉낙타의 고장인 움느고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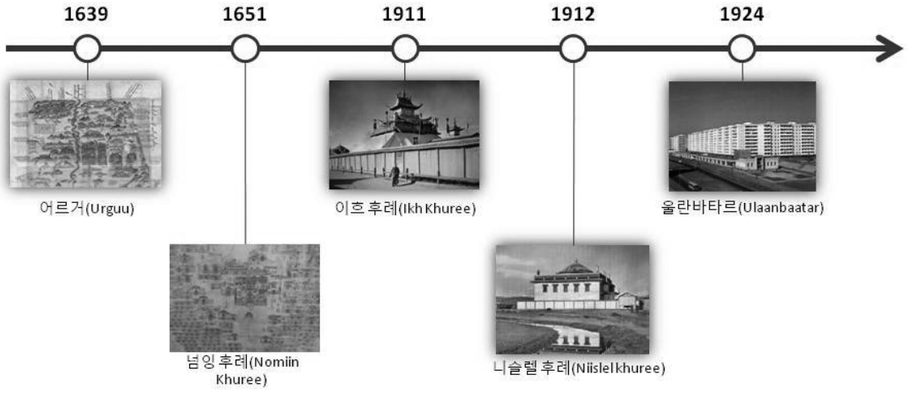
울랑바타르시 현황

B.DULMAA

2015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울랑바타르시 역사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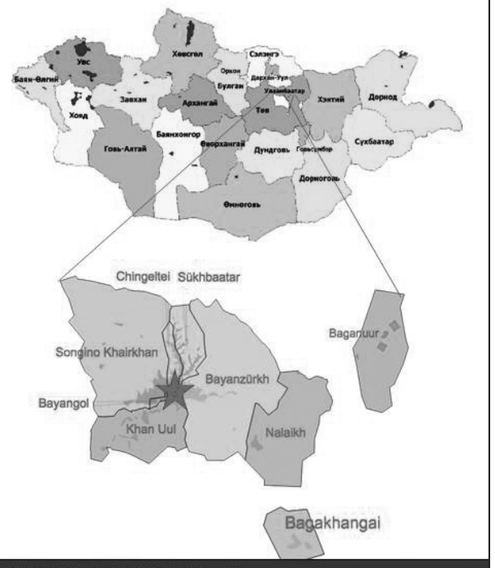
울랑바타르시 역사

- 1924-1990년까지 소련의 지원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및 사회 인프라 개발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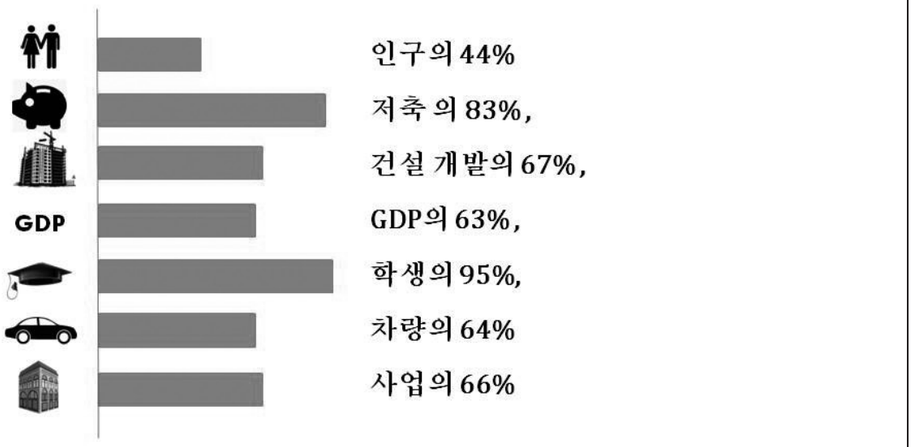
울랑바타르시

- 몽골의 수도
- 행정구역: 9개
- 면적: 4,704.4 км²
- 인구: 1,278,000
- 인구밀도: 272/км²
- 평균 수명: 68.8세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올랑바타르시



인구의 44%

저축의 83%,

건설 개발의 67%,

GDP의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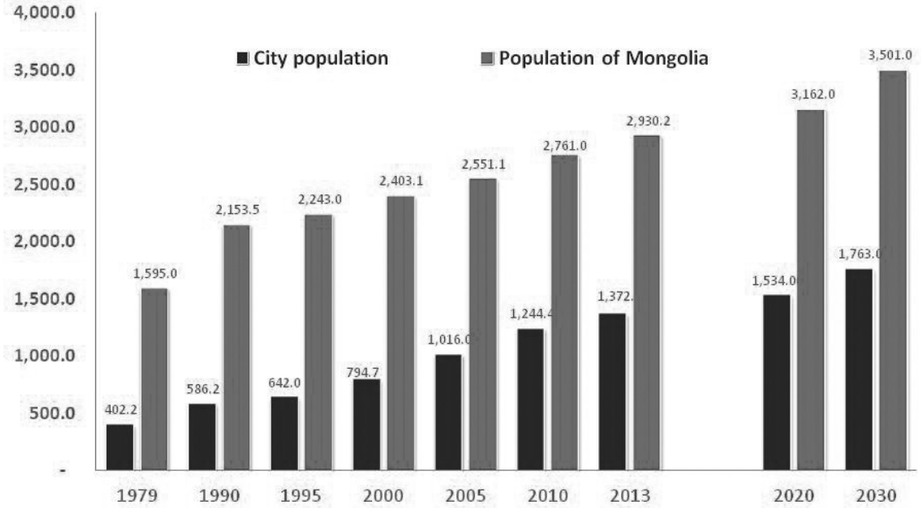
학생의 95%,

차량의 64%

사업의 66%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인구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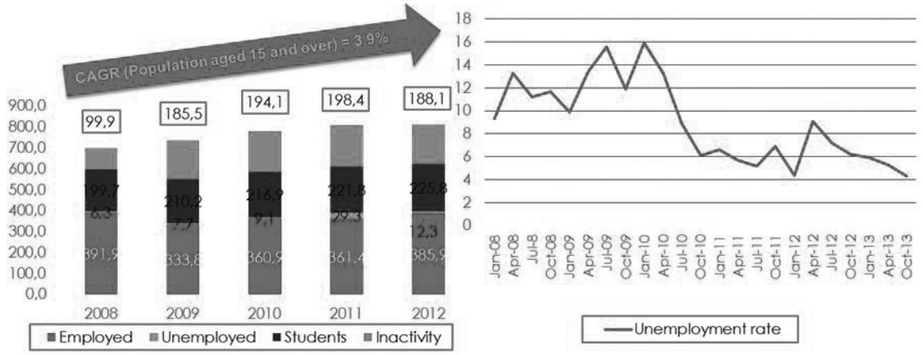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세계 도시의 번영 지수

	Country	City	City Prosperity Index (CPI)	Productivity Index	Quality of life Index	Infrastructure Index	Environment Index	Equity Index
1.	Austria	Vienna	0.925	0.939	0.882	0.996	0.932	0.883
25.	Russia	Moscow	0.793	0.806	0.813	0.960	0.908	0.550
36.	China	Beijing	0.799	0.667	0.836	0.911	0.663	0.967
48.	**Mongolia**	**UB**	**0.675**	**0.493**	**0.777**	**0.632**	**0.804**	**0.722**
51.	India	New Delhi	0.635	0.596	0.690	0.786	0.448	0.712
58.	Bolivia	La Paz	0.551	0.363	0.621	0.745	0.606	0.502
69.	Liberia	Monrovia	0.313	0.048	0.381	0.411	0.886	0.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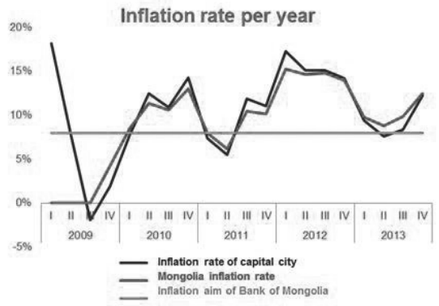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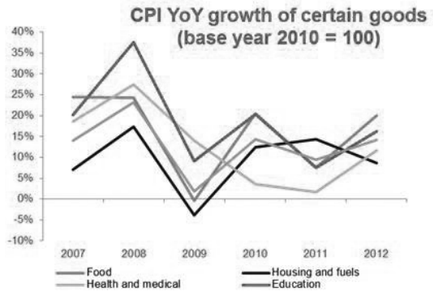
노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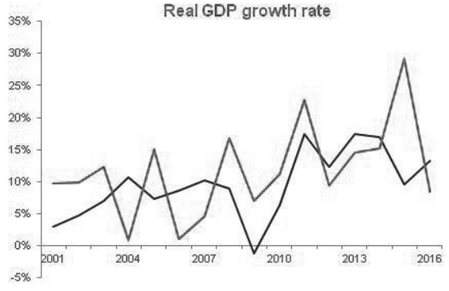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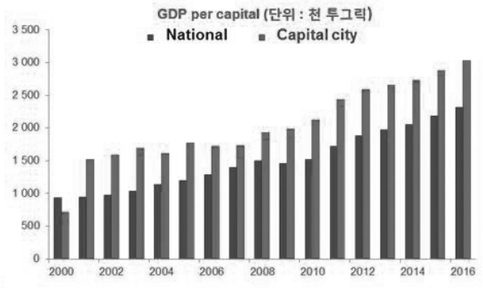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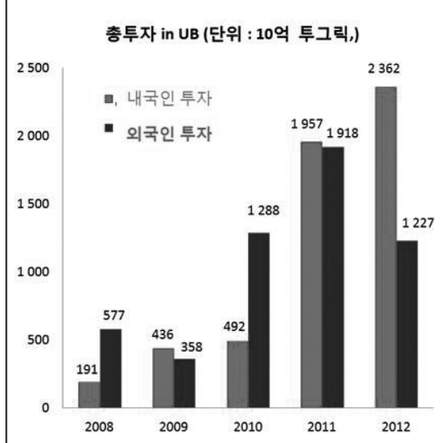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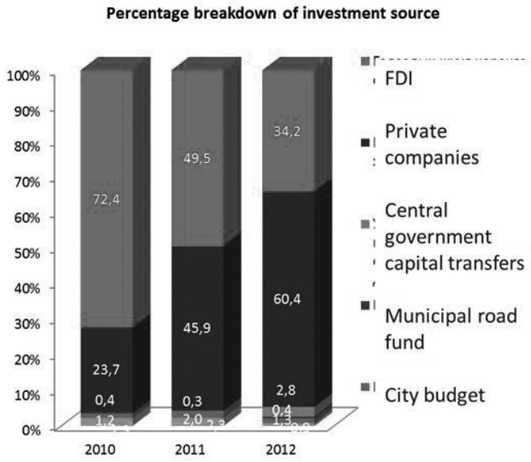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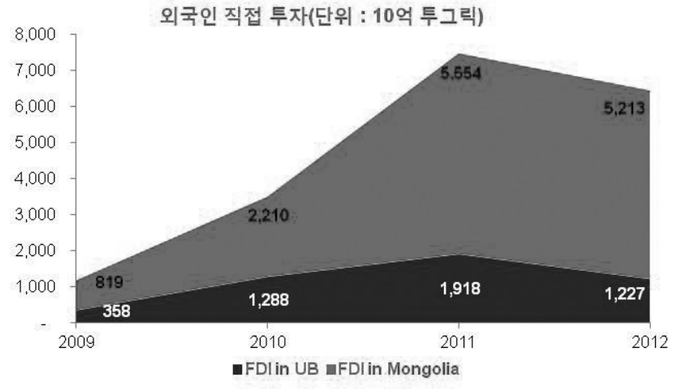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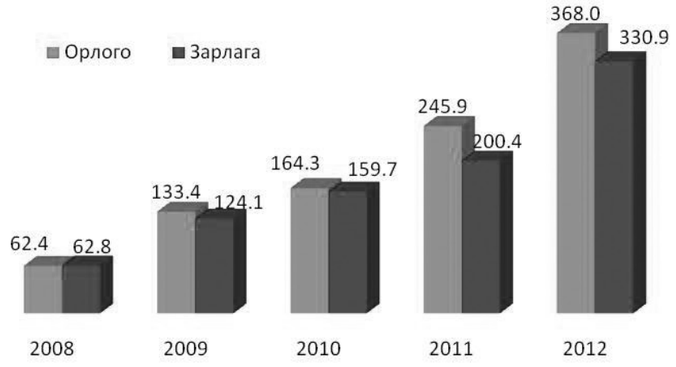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예산



예산 (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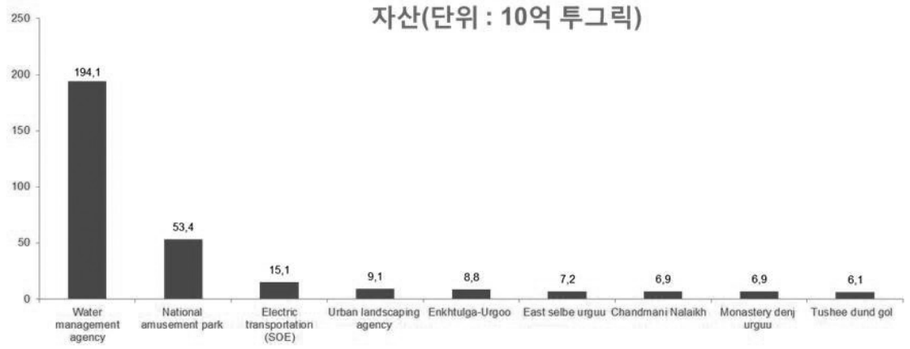
(단위 : 100만 투그릭)	2008	2009	2010	2011	2012
Cash surplus (requirement)/total revenue(%)	6.55	3.78	3.03	10.22	8.93
Own source of revenue /total revenue(%)	45.66	58.00	46.77	47.54	45.58

예산 구조	Percentage %
▪ Personal Income Tax	65.9%
▪ Other Taxes	24.8%
▪ Non-Tax Revenue	8.0%
▪ Revenues from Privatization	1.3%

민간기업

	Revenue >10 BN	1-10 billion	100MM - 1BN	10-100 million	Approx. 10MM	Total
Total number of entities %	0.7%	3.7%	13%	26%	56%	100%
Total revenue %	69%	20%	8%	2%	0%	100%
Total salary cost %	47%	26%	17%	9%	2%	100%
Total operating cost %	48%	26%	17%	8%	1%	100%
Net profit %	99%	17%	-1%	-12%	-2%	100%
Income before tax billion MNT	2,187.8	473.9	97.2	(128.6)	(21.2)	2,609.2

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제개발 전략

지역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

금융 역량 강화 개발

개발 프로젝트

민관 협력

산 업 화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개발 비전 2030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

아시아 최대 관광지

스마트 시티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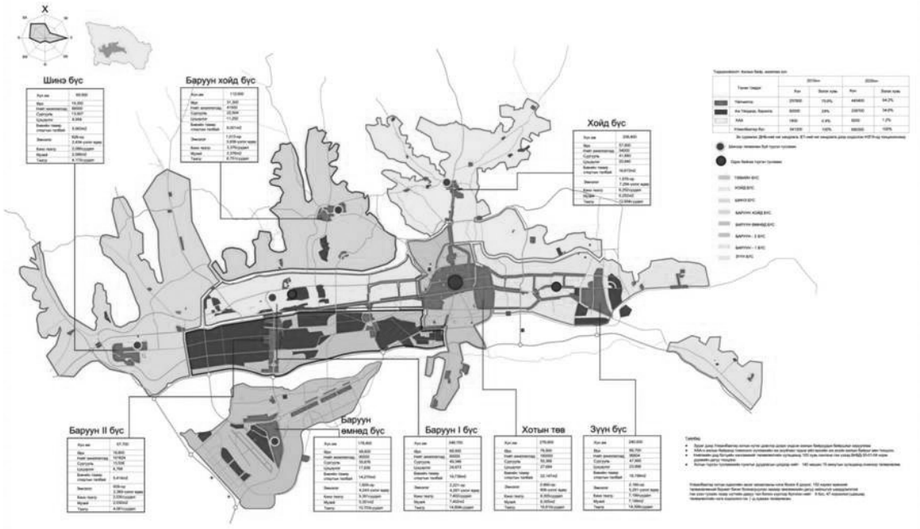
연중 방문자 500 만명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사업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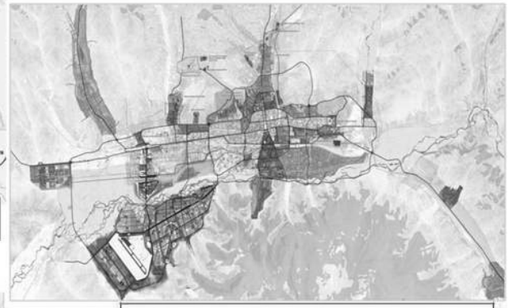
- 기본 계획 2030
- 경제 개발 전략
- 신용 등급
- 지방채 발행
- 재산세 (부동산의 소유권)
- 스마트 UB
- 스마일 UB
- 게르구역 재개발 (20 곳)

게르구역 재개발



게르구역 재개발

1st phase of construction



2nd phase of construction

Index	Total
구	7개
재개발구역	20곳
총 면적	1 337.5ha
인구	69 702명

신청사

REPRESENTATIVE OFFICE OF ULAANBAATAR CAPITAL CITY OF MONGOLIA

게르구역 재개발

도심 게르구역

중상층 주거단지

교외 게르구역

개인주택

감사합니다.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전재원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선 2015~2016년 NEAR 의장단체로 이르쿠츠크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NEAR 사무국과 모든 회원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NEAR 실무위원회와 총회가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 중국, 한국, 일본, 몽골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와 이르쿠츠크주는 수년 동안 대외경제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협력파트너입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이들 국가와의 대외무역량을 총매출액의 60%까지 끌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쿠츠크주는 동북아국가들과 경제무역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IrkutskAircity', 'BaikalSmartcity' 가 있고, '마기스트랄늬(magistralnyi)' 부락의 목공단지 건설, '우스티-쿠트스키(Ust-kutsky)' 지역과 '카탄그스키(Katangsky)'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산지 개발 공동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르쿠츠크주는 1996년 NEAR의 창설멤버로서 그동안 연합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NEAR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르쿠츠크주는 오랫동안의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쿠츠크주에서는 올해 10월 13~16일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될 NEAR 실무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NEAR 회원단체 대표자 여러분!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를 방문하셔서 이르쿠츠크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인 바이칼호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연합의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단체들의 공동의 목표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NEAR 체육분과위원회 개최

러시아 사하공화국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NEAR 실무자워크숍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대표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 NEAR 총회에서 사하공화국을 코디네이터 단체로 한 NEAR 체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분과위원회의 활동은 회원단체 체육분야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의 다양한 전통 스포츠가 국제적 수준에서 마음껏 경기를 보여주고 홍보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체육분과위원회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민족전통 스포츠포럼도 공동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전임 NEAR 사무총장은 체육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지지하였고, 회원단체에게 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NEAR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께 소속 지방정부의 대표단을 선정하여 체육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제1회 체육분과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2015년 7월 15일에서 17일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제1회 체육분과위원회 주요내용
- 체육분과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토의, 승인
- NEAR 체육 발전에 관한 회원단체의 다양한 경험 소개
- 회원단체의 건강한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소개
- 체육관련 잠재적 협력사업에 관한 의견교환과 체육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사항

○ 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부대행사
- 야쿠츠크시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경기인 '아시아의 어린이' 행사에 참여하여 사하공화국의 스포츠 인프라 시찰
- 야쿠티야 전통 스포츠 관람
- 야쿠츠크 관광명소 방문

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은 회원단체별 참가자 2명에 대하여 행사 기간 중 체재비(숙박, 식사, 현장탐방, 이동교통비)는 코디네이터 단체가 부담하며, 왕복항공료는 참가단체가 부담합니다. 행사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검토 후에 행사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EAR 회원단체 대표자 여러분! 끝으로 저희 사하공화국에서 2015년 7월 15에서 17일까지 '제1회 체육분과위원회' 를 개최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NEAR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NEAR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회원단체 의견수렴 결과》

□회원단체 의견 조사 개요

○기　간 : 2015. 4. 1 ~ 4. 28

○대　상 : 71개 회원자치단체(북한지역 제외)

○내　용 : NEAR 회비제 도입,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조사배경 : 10차 총회 사무국 제안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의견제출단체 : 71개 단체 중 47개(회수율 66.2%)

□NEAR 회비제 도입

1. 회비제 도입 시 회비의 부과방식(46/71)

○정액제(20), 차등제(17), 기타(9)

※ 기타의견

· 일　본(6) : 회비제 도입 시 탈퇴 또는 옵저버로 전환

· 한　국(2) : 회비제 도입반대하여 선택하지 않음, 무응답

· 러시아(1) : 회비도입 반대하지 않으나 부과방식 결정은 유보

2. 정액제 회비제 도입 시 회원단체별 적정 연회비금액(46/71)

○US$2,000(17), 기타(15), 반대(1), 무응답(13)

※ 기타의견

· 몽　골(8) : $1,0000이하

· 중　국(3) : $1,000

· 한　국(2) : $1,500,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비용을 조사 후 결정

· 러시아(1) : 회비금액은 사용용도 정한 후 금액 결정

* 일부 러시아 단체는 외환 송금상의 어려움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일　본(1) : US$2,000 산정 근거 판단 곤란

3. 회비 사용용도에 대한 회원단체 의견

① NEAR 청년인턴 해외 파견사업(13)

② 인적교류(12)

③ 의장단체에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비용지원(11)

④ 분과위원회 재정지원(10)

⑤ 경제교류(9)

⑥ 교류증진(9)

※ 기타의견(3)

· 청소년 교류(2) : 중국1, 한국1

· 현재 실시중인 사업의 경비로 충당(1) : 일본1

4. 기타의견

○현장에 규정된 '감사 선출' , '예산 · 결산, 사업계획 승인' 사항의 시행 (일본2, 한국1)

○회비 도입시 탈퇴하는 단체도 나올 수 있으나 회비를 납부하고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회원단체로 재구성하여 성과 있는 사업 시행 필요(일본1)

○회비의 용도 결정과 도입 합의 후 징수 방법과 내용 검토(일본2)

○회비제 도입시 회원단체 중 일부 탈퇴 가능성 제시(일본1, 한국1)

○실질적인 사업에 회비 사용 희망(몽골1)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1. 4~5개 분과위원회를 묶어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한 회원 단체의 의견

○전체 회원단체 (46/71) : 찬성(30), 반대(12), 무응답(4)

○코디네이터단체(10/14) : 찬성(6), 반대(4)

2. 개최실적이 부진한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회원 단체의 의견 (찬성의견수/제출단체수)

○전체 회원단체(61/45)

· 공동개최(21), 타단체 이양(13), 폐지(19), 무응답(8)

○코디네이터단체(13/10)

· 공동개최(6), 타단체 이양(3), 폐지(3), 무응답/기타(1)

3.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애로사항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단독 개최함에 따른 예산부담 가중(중국1, 일본2, 한국3)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 저조(한국3)

○회의 운영과 관련된 통번역 인력 확보(일본1)

4.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회원 단체 의견

○'분과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시행(일본2)

○사무국 차원에서 홍보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성과 등의 게재(홈페이지 등)로 분과위원회 관심 제고(한국1)

○분과위원회 회원지자체가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개최시기 등의 조정 노력 필요(한국1)

○농업, 해양어업, 환경, 광물자원 등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 (가칭 농수산환경위원회)를 만들어 4~5년마다 한번씩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분과위원회 예산 절감 및 다수회원 참여로 활성화 유도(한국1)

○짝 · 홀수 연도로 분과위원회를 배분 · 지정하여, 한 해에 몰아 개최되는것을 방지하고, 그 분과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참여율을 제고(한국1)

○분과위원회 행사에 대해 회원단체에 홍보 또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회원단체들의 의견수렴(몽골2)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순차적 실시와 참가단체의 협력(일본1)

○해외 참가단체에 대한 사무국의 초청, 의제통역 등 지원 필요(한국1)

○국내 참가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한국1)

○분과위원회 수를 줄여 소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국1)

○타 분과위원회 운영 벤치마킹과 운영관련 직원교육(몽골1)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2015년도 NEAR 주요행사 일정

2015년도 NEAR 주요행사 일정

□주요행사 : 총회/실무위원회(격년제), 분과위원회, 국제포럼, 실무자워크숍

NO	일정별	행사명	주관단체	장소	연락처
1	3. 9~3.12	제13회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국제교류과 (T)+81-78-362-9017
2	5.20~5.22	2015 NEAR 실무자워크숍	NEAR사무국	대한민국 경주시	NEAR사무국 (T)+82-54-223-2315
3	7.15~7.17	체육분과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	사하공화국	사하공화국 국제협력과 (T)+8-4112-343934
4	7.31~8. 5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T)+81-852-22-6463
5	8.26~8.28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글로벌통상협력과 (T)+82-53-950-2278
6	10월	농업분과위원회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T)+82-61-280-6241
7	10월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산둥성 해양어업청 (T)+86-531-8606-1765
8	10.13~10.16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 경제발전부 (T)+8-3952-2561-57
9	11월하순	2015 NEAR 국제포럼	NEAR사무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NEAR사무국 (T)+82-54-223-2328
10	11월	제12회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토야마시	공익재단법인 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 (T)+81-76-445-1571

* 회원단체 및 사무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행사일정 결정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협조 요망

참가자 명단

ㅁ중국 : 6개 회원단체, 13명

NO	회원단체명	성명(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6개 단체	13명			
1	헤이룽장성	양훙펑 (Yang Hongpeng)	남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처장
2	헤이룽장성	위엔후이팅 (Yuan Huiting)	여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3	후난성	인샤오위엔 (Yin Xiaoyuan)	남	후난성 정부신문판공실 대외선전처	처장
4	후난성	샤오공쥔 (Xiao Gongjun)	남	후난성 정부연구실	부조사원
5	지린성	리우용리 (Liu Yongli)	남	지린성 외사판공실	처장
6	지린성	양단 (Yang Dan)	여	지린성 외사판공실	과원
7	닝샤후이족자치구	리우저 (Liu Zhe)	여	닝샤 외사판공실	부처장
8	닝샤후이족자치구	하리 (Ha Li)	여	인촨시 경제협력외교국	프로젝트감독
9	산둥성	한잉화 (Han Yinghua)	여	산둥성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10	산둥성	위엔징슈에 (Yuan Jingxue)	여	산둥성 해양어업청	주임과원
11	간쑤성	마텅위 (Ma Tengyu)	남	간쑤성정부 판공청	처장
12	간쑤성	장샤오쥔 (Zhang Xiaojun)	남	간쑤성정부 판공청	처장
13	간쑤성	수이원량 (Sui Wenliang)	남	간쑤성 외사판공실	한국담당

ㅁ일본 : 3개 회원단체, 9명

NO	회원단체명	성명(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3개 단체	9명			
1	토야마현	다케쿠마 토시히코 (Takekuma Toshihiko)	남	관광지역진흥국 국제과	과장
2	토야마현	다카노 사나에 (Takano Sanae)	여	관광지역진흥국 국제과	주임
3	토야마현	김주희 (Kim Ju-hee)	여	관광지역진흥국 국제과	국제교류원
4	토야마현	하라다 노리히사 (Harada Norihisa)	남	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5	효고현	이시다 카즈노리 (Ishida Katsunori)	남	국제교류과	과장
6	효고현	시오미 아키히로 (Shiomi Akihiro)	남	국제교류과	주간(主幹)
7	시마네현	사카모토 이타루 (Sakamoto Itaru)	남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과장
8	시마네현	쯔모리 히토시 (Tsumori Hitoshi)	남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그룹리더
9	시마네현	박혜정 (Park Hye-jung)	여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국제교류원

ㅁ한국 : 13개 회원단체, 25명

NO	회원단체명	성명(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13개 단체	25명			
1	부산광역시	남정은 (Nam Jung-eun)	여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장
2	부산광역시	임정은 (Im Jeong-eun)	여	국제협력과	주무관
3	대구광역시	김보하 (Kim Bo-ha)	여	국제통상과	주무관
4	대구광역시	김소연 (Kim So-yeon)	여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주무관
5	인천광역시	손혜원 (Son Hey-won)	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6	인천광역시	김경헌 (Kim Kyung-hun)	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실무관
7	대전광역시	이규삼 (Lee Kue-sam)	남	국제교육담당관실	국제교류담당
8	대전광역시	구자두 (Koo Cha-doo)	남	국제교육담당관실	시간임기제다급
9	울산광역시	안종화 (An Jong-hwa)	남	통상교류과	국제교류담당
10	울산광역시	허경희 (Her Gyong-hee)	여	통상교류과	주무관
11	경기도	성진구 (Sung Jin-goo)	남	외교정책과	행정6급
12	강원도	우종기 (Woo Jong-ki)	남	국제교류과	국제회의담당
13	강원도	황정숙 (Hwang Jung-sug)	여	국제교류과	지방행정6급
14	충청북도	김명준 (Kim Myeong-june)	남	국제통상과	국제정책팀장
15	충청북도	장두창 (Jang Du-chang)	남	국제통상과	주무관
16	충청남도	박정완 (Park Jung-wan)	남	기업통상교류과	주무관
17	전라북도	송효원 (Song Hyo-won)	여	국제협력과	행정7
18	전라북도	한민화 (Han Min-hwa)	여	국제협력과	행정7
19	전라북도	김연지 (Kim Yeon-ji)	여	국제협력과	행정7
20	전라남도	김홍사 (Kim Hong-sa)	남	국제통상과	국제기획담당
21	전라남도	이은철 (Lee Eun-cheol)	남	국제통상과	행정7급
22	경상북도	이규삼 (Lee Gyu-sam)	남	글로벌통상협력과	국제협력담당
23	경상북도	유승희 (Yu Seung-hui)	여	글로벌통상협력과	행정7급
24	경상남도	김창덕 (Kim Chang-deag)	남	국제통상과	국제협력담당
25	경상남도	정현숙 (Jung Hyun-suk)	여	국제통상과	주무관

ㅁ몽골 : 11개 회원단체, 20명

NO	회원단체명	성명(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11개 단체	20명			
1	아르항가이아이막	뭉흐바야르 왕칙마 (Munkhbayar Vanchigmaa)	여	아르항가이아이막 행정국	국제교류담당
2	도르노고비아이막	이데르마 바트수릉 (Idermaa Batsuren)	여	에르덴군청	행정국장
3	도르노고비아이막	오치르호익 바트치멕 (Ochirkhuyag Batchimeg)	여	행정관리과	직원
4	돈드고비아이막	페렝레이 뱜브르학와 (Perenlei Byambalkhagva)	남	돈드고비아이막 행정국	국장
5	돈드고비아이막	벌러댜 사잉빌레그 (Volodya Sainbileg)	여	돈드고비아이막 행정국	국제교류담당
6	자브항아이막	이데르뭉흐 양징르함 (Idermunkh Yanjinlkham)	여	자브항아이막 행정관리과	국제교류담당
7	자브항아이막	마잉다르 사랑치멕 (Maindar Saranchimeg)	여	사회개발과	수석실무자
8	오르홍아이막	서서르 엥흐툽싱 (Sosor Enkhtuvshin)	여	재정과	회계담당
9	오르홍아이막	오소르 사랑게렐 (Osor Sarangerel)	여	국가등록과	재산등록담당
10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먁그마르수렝 바트조릭 (Myagmarsuren Batzorig)	남	행정관리과	국제교류담당
11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라드나바자르 나랑체첵 (Radnaabazar Narantsetseg)	여	사회개발과	실무자
12	움느고비아이막	더르쯔팔람 나차그더르쯔 (Dorjpalam Natsagdorj)	남	움느고비아이막	부지사
13	움느고비아이막	뭉흐델게르 우를레 (Munkhdelger Urlee)	여	행정관리과	국제교류담당
14	셀렝그아이막	멍허더에 남수릉 (Monkhoodoi Nyamsuren)	남	법원 행정과	과장
15	셀렝그아이막	종도이 영덩 히식자르갈 (Zundui Yondon Khishigjargal)	여	문서보관계	계장
16	투브아이막	오치르 오용체첵 (Ochir Oyuntsetseg)	여	기상관측소 정보서비스과	과장
17	투브아이막	상닥수릉 어트겅수릉 (Sandagsuren Otgonsuren)	여	기상관측소 환경관측과	과장
18	옵스아이막	빠스트 바야르사이항 (Baast Bayarsaikahn)	여	세무과	세금 사정관
19	옵스아이막	융게릉 오트공자야 (Yungeren Otgonzaya)	여	세무과	세금 사정관
20	올랑바타르시	바트투무르 돌마 (Battumur Dulmaa)	여	올랑바타르시청	올랑바타르시 한국주재관

ㅁ러시아 : 3개 회원단체, 6명

NO	회원단체명	성명(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3개 단체	6명			
1	이르쿠츠크주	안나 라만 (Anna Laman)	여	경제발전부	계장
2	이르쿠츠크주	빅토리야 니코노로바 (Victoria Nikonorova)	여	경제발전부	직원
3	뜨이바공화국	스베틀라나 오셰프코바 (Oshchepkova Svetlana)	여	과학·교육부	제1차관
4	뜨이바공화국	로만 쉬닌 (Shinin Roman)	남	에르진스키구	구청장
5	사하공화국	발라크쉰 게오르기 (Balakshin Georgy)	남	체육부	제1차관
6	사하공화국	프로토포포프 발레리 (Protopopov Valeriy)	남	국내 및 대외관계부	과장

ㅁNEAR사무국 : 17명

NO	성명 (영문)	성별	소속	직위(급)
계	17명			
1	전재원(Jun Jae Won)	남		사무총장
2	김상길(Kim Sang Gil)	남		사무처장
3	박창호(Park Chang Ho)	남	기획총무과	기획총무과장
4	권남원(Kwon Nam Won)	남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5	김영남(Kim Yeung Nam)	남	기획총무과	기획총무담당
6	박성민(Park Sung Min)	남	국제협력과	국제협력팀장
7	윤혁준(Yun Hyeok Jun)	남	기획총무과	주무관
8	김경실(Kim Kyung Sil)	여	기획총무과	영어전문위원
9	김유진(Kim You Jin)	여	기획총무과	비서,행정전문위원
10	이혜정(Lee Hye Jung)	여	국제협력과	중국전문위원
11	이명은(Lee Myung Eun)	여	국제협력과	일본전문위원
12	르함 히식자르갈(Lkham Khishigjargal)	여	국제협력과	몽골전문위원
13	최주화(Choi Ju Hwa)	여	국제협력과	러시아전문위원
14	덩웨이(Deng Wei)	여	국제협력과	중국 파견직원
15	마쓰오 슈이치로(Matsuo Shuichiro)	남	국제협력과	일본 파견직원
16	바트소이르 온드라흐(Batsuuri Undrakh)	여	국제협력과	몽골 파견직원
17	그로 야나(Groo Iana)	여	국제협력과	러시아 파견직원

MEMO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5

2015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 790-834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790-834 3F, Pohang Techno Park, #394 Jigok-ro (#601 Gigok-dong), Nam-gu, Pohang City, Gyeongsangbuk-do
T. +82-54-223-2311~20 F. +82-54-223-2307,2309 H. www.neargov.org

CHINA	+82-54-223-2320
JAPAN	+82-54-223-2317
KOREA	+82-54-223-2318
MONGOLIA	+82-54-223-2384
RUSSIA	+82-54-223-2319